

2020년 여름호 vol.159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올해의 이화인’ 추대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동창



표지사진
황규호(도교 교육학과 교수)
ECC에서 본 본관의 여름(2018)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0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82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0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코로나 팬데믹에 즈음하여
- 03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이화의 주인공들이여 비상하라
- 09 2020 올해의 이화인**
황세례나 동창 등 49인
- 12 2020년도 정기총회**
일정 순연 끝에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안과 회칙개정안 통과
- 14 2020 신입 동창 환영회**
신입 동창 입회를 축하하고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까지
- 15 2020 신입 동창 환영사**
김용재 약학대학 동창회장
- 16 2020 신입 동창 답사**
민다해 신입 동창
- 17 2020년도 사업계획안**
- 18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면 합창과 기도로 어우러진 은혜와 기쁨의 시간
- 21 축하합니다**
장필화 동창 외
-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폐인 재능 재활 기업 오티스타 대표 이소현 동창
- 2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비건식당 '베지베어' 공동 대표 고다현·조은화 동창과 민성주 재학생
- 32 이화비즈**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주)모터원 부사장 손혜경 동창
- 36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김순영 고문 퇴임 외
- 39 선교부 소식**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 발행과 동창 선교사 소개
- 41 모교 소식**
2020학년도 공립 교사임용시험에 이화인 300명 합격 외
- 46 이화인 모임 탐방**
라인댄스 연구모임
- 5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네시아 송사랑 동창
- 52 대학(원) 소식 의과대학 외**
- 53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56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61 동창 근황 이정주 동창 외**
- 67 동창이 평낸 새 책**
『아이슬랜드 가족여행, 짧은 지구를 걷다』 외



03



09



12



28



32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31-2:1)

코로나 팬데믹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온 천지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절기에,

모교 이화가 134세가 되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당신의 손길에 감사가 새롭습니다.

온 만물의 소성을 간절히 바라는 이즈음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새삼 기억하며 감동이 넘칩니다.

이 시간 우리 이화 동창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감동을 좇아 당신의 뜻 앞에 마음 모아 간구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곳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 길 밝히 보며 기도의 줄 불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불안과 두려움에 울고 있는 크고 작은 신음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얼마나 만족히 여기며 살아 왔는지

그 만 가지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돌이켜 무릎 꿇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빛으신 생명 하나하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당신의 마음 앞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혀영과 사랑과 정욕과 탐심을 채우고자 그 생명들을 향하여 마구 폭력을 휘둘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를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만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그 경계를 넘나들며 훼손하고 훼방했음을 참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함으로 기경하셔서,

전 피조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보며 고난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생명을 품어 나누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천지만물 위에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새로이 덮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성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심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강당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창의 날 올해의 이화인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이화의 주인공들이여 비상하라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29일(금) 오후 2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 2부로 치러진 기념식은 1부 총동창회장 기념사, ‘빛나는 이화인상’ 시상과 ‘올해의 이화인’ 증서 수여, 졸업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및 인사, 모교 소식, 축하연주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치러졌다. 매년 인기리에 진행되었던 합창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하였다.

국내외의 동창이 모여 밝은 웃음으로 교정을 가



기념사를 하고 있는 남상택 총동창회장

득 채웠던 예년과 달리, 5월의 눈부신 햇살과 푸른 신록만이 빛내고 있는 가운데,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총장

더욱 우뚝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강당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단 기입,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는 조용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이화 동창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화 동창과 가족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총장 초청 오찬도 생략한 채, 소수의 행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어려울 때마다 이화의 진선미 정신 되새기자

1부는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하여 찬송가를 생략한 채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134년 전 이 땅에 이화를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화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화 동창들을 교정에서 만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심정을 밝혔다. 남상택 총

동창회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가 달라졌듯이 총동창회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 “오늘 기념식처럼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눔과 헌신의 이화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했다”면서 “이번에도 많은 국내외 동창들이 전국의 의료 시설과 후배 재학생들을 도우며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보여 주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뜻깊은 날에 아름다운 교정에서 동창들과 해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모두 이화의 주인공들이니 마음껏 축하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가 최초를 넘어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으로 비상하는 데 총동창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고 동창들에게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제5회 ‘빛나는 이화인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태경그룹 회장인 김해련(경영 84) 동창이 선정되었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패션플러스’를 키워낸 전설적 CEO이자, 국내 1위의 무기화학 기초소재 산업체인 글로벌 기업 태경그룹 회장인 김 동창은 ‘송원김영환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등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
는 자랑스러운 이화
인이다.

김해련 동창은 “빛
나는 이화인상 수상자로서 자긍심을 갖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김해련 동창



고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상에 걸맞은 멋진 이화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교정에서 학생으로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회상하며 “이화 동창들도 어려운 시기지만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으로 회사를 키우겠다는 김해련 동창의 도전 의식과 여성적인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은, 소프트 산업으로 넘어가며 여성성이 메리트가 되는 이 시대에 차별되는 리더십으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 대표의 인사

다음으로 ‘올해의 이화인’ 중서 수여식이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는 1990년 졸업생들 중에서 각 과별로 추대된 49명을 대표하여 최혜정(한음 90)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중서를 수여했다. 곧이어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순서가 이어졌다. 졸업 50주년 대표 김홍희(불문 70) 동창과 졸업 30주년 대표 안순태(법학 90) 동창이 각각 나와 기념품과 꽃다발을 안고 소감을 말하였다.

졸업 50주년 대표 김홍희 동창



졸업 30주년 대표 안순태 동창



졸업 50주년 동창 대표 김홍희 동창은 인사말에서 “교정을 떠난 지 50년, 이화는 눈부신 발전을 하여 동창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내외에서 비디오 아트와 페미니즘 아트 연구 활동을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한 김 동창은 “미술사 연구와 화단 활동을 하면서, 불문학 기반의 인문학은 물론 이대 졸업생이라는 배경이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였다. “학창 시절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모교와 동창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심정을 전한 김홍희 동창은 “모교가 배출한 선배 여성운동가들의 뒤를 이어 여성 문화 발전에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며 소감을 마무리하였다.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 안순태 동창은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현재는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밝히고 “30년 전 이화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열린 캠퍼스, 다양한 이화인의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안 동창은 “당시 이화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접하기 어려워, 여름 방학에 국제 학계대학이 열리면 기숙사가 있던 진관 근처에서 외국인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기해했다”고 기억하였다. “이제 모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만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고, 수업 시간에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화 동창이 되어, 언젠가 이 자리에서 30주년 동창 대표 인사를 외국인 동창이 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동창은 “재학생들은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폭넓은 사고와 주도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며 “30년 전에는 팝송을 듣고 홍콩 영화를 봤지

만 이제는 가수 BTS와 영화 <기생충>을 이야기하며 우리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주역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을 본다”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인재 양성 기관인 이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소명을 크게 펼치길 바라며 응원을 부탁하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우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되새기자

이어서 김혜숙 모교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김혜숙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학기는 일찍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맞이한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협동과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많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교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되어 모든 재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두 과목씩 필수로 수강하여 디지털 세상에 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대가 2022년부터는 1학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새롭게 도약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혜숙 총장은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BK21(교육부 지원 Brain Korea21 Plus) 사업 4단계에 진입하여 선정을 마쳤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혜숙 총장은 “김활란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삶에서 등불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어느 동창의 고백을 전하며 이화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후원에 동창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 뒤 “이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과 사랑, 후배들에 대한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부의 마지막은 축하 연주 순서였다. 최연수(관현 87)·곽연희(관현 89) 동창의 플루트와 우숙영(피아노 87) 동창의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가운데 이화를 빛낸 동창들을 축하하며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 연주가 영상 연주 형식으로 변경되어 동창회관 홀에서 사전 녹화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다. 테오발트 뷔 작곡의 <멘델스존과 라크너 주제의 플루트 트리오>와 대중가요 <아로하(사랑이라는 뜻)> 두 곡을 편곡해서 좀 더 친숙한 멜로디에 사랑을 담아 <멘델스존과 아로하>라는 제목을 붙여 들려주었다.

‘올해의 이화인’ 49인 추대식

1부 기념식이 끝나고 홍은아(체육 03) 회우부장의 사회로 2부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열렸다. 졸업 30주년 동창들 가운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혜정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강당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창의 날 올해의 이화인



졸업 30주년 동창들 중에서 각 과에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소임을 다하여 각 과를 대표하여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은 연분홍 치마에 흰색 저고리 한복을 갖춰 입고 역시 분홍으로 색깔 맞춤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중앙 무대 위에 옆 사람과 충분한 거리 두기로 정렬하여 착석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9명의 동창 중 타이완에 거주 중인 박혜경(기독 90) 동창과 베트남의 이성주(성악 90) 동창, 미국의 이소영(특교 90) 동창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참석하지 못하였고, 기타 개인사정으로 11명이 참석하지 못해 올해는 38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추대식 행사를 빛냈다.

2020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들은 창립 100주년인 1986년에 입학하자마자 100주년 기념식 준비와 축제를 대대적으로 즐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1990년에 졸업하고 올해 2020년에 서른 번째를 맞는 30기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돼, 숫자가 0으로 끝나는 의미 있는 기수라고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졸업 후 30년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쉼 없이 달려온 동창들은 이화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배출되어 사회에서 이화인의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이제 모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화를 위해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올해의 이화인' 황혜현(유교 90) 동창은 "동기들에게 카톡 방에서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무척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제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삼성샛별유치원의 법인인 충남삼성학원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축하하며 자리를 비우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답니다"라고 말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화인을 만나 이후의 시간에 대해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더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의 이화인' 대표를 맡은 한국음악과 최혜



축하 연주를 한 곽연희·최연수·우숙영 동창(왼쪽부터)

정 동창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대폭 축소되어 축하해 줄 가족들과 동창들이 못 와서 아쉽다”면서도 “서러움을 딛고(웃음) 올해 추대된 이화인 모두 모교를 위해 봉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었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참석해 주었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주은(사학 90) 동창은 “학교 다닐 때 학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과 교육받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훈련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여성 안전기획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 동창은 “여성들과 연대하고 소통했던 훈련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고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어머니 또는 자녀로 이어지는 2대 이화인도 눈에 띄었다. 윤선영(화학 90) 동창은 “이화 100주년에 입학했을 때는 얼마나 빛나고 자랑스러운지 느끼지 못했는데, 딸아이가 130주년에 입학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화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더 샘솟는 것 같다”며 “후배들이 여성 과학자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

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념식 마지막은 교가 제창. 이번에는 현장에서 교가를 직접 부르지 않고 황규호 모교 교육학과 교수가 직접 찍은 이화 캠퍼스의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에 교가를 덧붙여 제작한 특별 동영상이 화면을 수놓았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들은 아령당으로 자리를 옮겨 김혜숙 총장 및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올해의 이화인’ 중서를 받는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후, 기다리고 있던 동창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하나 되어 모교 응원해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총장 초대 오찬이 취소되어, 매년 생활환경관 학생식당에서 졸업 50주년과 졸업 30주년을 맞는 동창들이 학교를 찾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창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합창제를 비롯하여 모교 김숙자(체육 64) 명예교수가 지도하는 ‘다함께 몸풀기’ 체조 순서도 열리지 못했다. 합창제를 위해 1년을 준비하며 기다린 동창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되길 기원하였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처음 시도된 이번 기념식에서 23만 이화동창은 세계 곳곳에서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하나 되어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DljzlCduazbmhFuL-9mZQ>)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20 올해의 이화인 (1986년 입학, 1990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황세레나(국문)
한국어 교육 전문가,
한국어문화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진영(중문)
수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한국중국소설학회 회장



박경희(영문)
삼성증권 전무(SNI전략담당)
(제)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임소영(불문)
(제)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박지나(독문)
플로리스트



박혜경(기독)
타이완 장영대학교 교수



조주은(사학)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김혜양(정외)
(주)유니코씨치 대표



허경희(행정)
신한은행 이화여대 지점장



유지연(문정)
그린포트(주) 대표



채윤정(사회)
비교(보석과 부자재 수입) 대표



김주현(사복)
사회복지 자원 활동가



장은진(심리)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이래영(수학)
정신여자중학교 수학교사



탁정미(물리)
효성ITX 상무



윤선영(화학)
(주)챔박스엔카엘 상무,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동국대 겸임교수



이현숙(생명)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고소희(컴공)
적십자 서울지사 자문위원



이화정(피아노)
피아니스트,
하노이 국제예술대학 교수



이지연(관현)
주부



이성주(성악)
JMEK 이사



하지양(작곡)
수원과학대학 교수



김선정(종음)
(주)엔아이디에스 이사,
100주년기념교회
오르가ニ스트



최혜정(한음)
음대 동창회 부회장,
전)한국음악과 동창회장



문정이(동양)
주부



조강신(서양)
서양화 작가



박효정(조소)
조각가



박희진(섬예)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지민(생미)
여주대학교 교수



심은주(장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노태린(도예)

고도일병원 행정원장



김민정(무용)

김민정 이화밸리대학원 대표,
단장



김경희(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황혜현(유교)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삼성샛별유치원 원장



김경희(초교)

한양초등학교 교사,
영일학원 재단이사



이돈아(교공)

밀티미디어 아티스트,
(주)아트앤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소영(특교)

텍사스 텍 대학교 교수



김선경(영교)

주부



이진수(과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연구실장



김영복(융합보건)

대구대학교 재활건강중진학과
교수



최정숙(법학)

법률사무소 남촌 대표변호사



김현정(경영)

ESTEE LAUDER KOREA 전무



이재경(국제사무)

(주)삼성증권 전무,
사단법인 뷰티풀마인드 이사



박미혜(의학)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숙영(간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곽현희(약학)

체크메이트 테라퓨틱스
대표이사



방혜연(제약)

한국엠에스디 혁개개발부
전무



정신호(가관)

통합예술치료사,
KIIAT 책임연구원



김정선(식영)

국립암센터 교수

일정 순연 끝에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안과 회칙개정안 통과



202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75명의 이화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년 3월 둘째주 토요일에 열리던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를 감안해 개최 시기를 조율한 끝에 5월 열리게 되었고, 전날 방역을 마친 대회의실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명부 작성, 문진과 발열,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체크한 뒤 입장할 수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라 총동창회의 여러 행

사가 무관중, 비대면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한 뒤 “선배들의 고견과 후배들의 에너지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 꼭 이화 동창과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김인정(컴공 87)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아 통과되었고, 임진(작곡 72) 감사가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를 진행하였다. 이어 한미경(물리 88) 총무가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를 하였고, 임선희(경영 88) 회계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 후 이승희(피아노 87) 동창의 동의와 임경희(간호 80)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

기로 가결하였다. 이어 임선희 회계는 2020회계 연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송필례(융합보건 82) 동창의 동의와 한명옥(무용 79)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였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회칙 개정 승인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회칙 개정 위원(김순영·이경숙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최희경 법대 교수, 이정화 인문대 동창회장, 최은영 자연과학대 동창회장, 정현미 법대·법전원 동창회장)을 구성하여 4차의 개정안 회의를 실시하고, 전효숙(법학 73, 전 현법재판관 및 모교 법전원장) 동창의 최종 자문을 받아 최종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과, 단과대학, 대학원 동창회를 대표해 참석한 동창들에게 참석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회칙 개정을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모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명경 부회장이 유인물 9~11쪽을 읽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각 개정안에 대해 부연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원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숙희(물리 87) 동창의 동의와 오숙영(사회 77) 동창의 재청으로 전체 참석자가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회칙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언했다.

김혜정(영문 72) 동창은 작년 총회에서 전의한 회칙 개정 내용을 빠르게 추진해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회장 후보 추천인을 홈페이지에 공

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추대 위원이 설립되면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회장 후보 추천인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남상택 총동창회장

전달할 것과 추천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였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정기임원회에서 11인의 선출위원회를 선정하고, 회장단 추대위원 7인을 선임하며, 12월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회장단 후보 선임을 준비하는 등의 절차가 뒤따를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날 김혜숙 모교 총장은 영상으로 다양한 모교 소식을 전하며 “이화 동창들의 이화 사랑, 혁신 등에 힘입어 이화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이화의 밝은 미래를 전했다. 정기총회는 2시 50분에 폐회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신입 동창 입회를 축하하고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까지

정기총회에 앞서 2020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가 5월 21일(목) 오후 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2020년도 2월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총동창회가 마련한 행사이다.

홍은아(체육 03)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신입 동창 환영회는 이승희(피아노 87) 음악부장의 찬송가 585장 연주에 이어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평생 이화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며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 김용재(약학 82) 약대 회장이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이화인이 되길 바란다”는 환영사를 했고, 신입 동창 대표 민다해(체육 20) 동창이 “이화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화의 DNA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사를 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의 입회를 축하하며 민다해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했고, 이어 구민지(동양 20) 동창 외 49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이해정(피아노 84)·김진우(피아노 88) 동창은 신입 동창을 환영하며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들려주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신입 동창들의 동창회 입회를 축하하는 선배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는 훈훈한 자리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1. 신입 동창 대표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3. 축하 연주를 들려준 이해정·김진우 동창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화인으로, 더 높이 전진하길

김용재(약학 82, 약학대학 동창회장)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이화 동창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이 취소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화의 교정에서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진선미의 이화 정신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마주할 것 이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높은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화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30여 년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이바지하였습니다. 섬김과 나눔, 헌신과 봉사의 이화 정신으로 우리 동창들은 현재 각 전문 분야에서 이화인의 이름을 빛내며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화의 23만 동창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올타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이화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화가, 이화 동창들이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참석하신 모든 이화인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총동창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예정된 행사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거나 비대면, 무관중 행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중 행사로 진행된 감사찬양예배와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KDljzlCduazbmhFuL-9mZQ>)**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이화인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며

민다해(체육 20)



중학교 때 진취적인 여성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이화여대 진학을 꿈꾸며 ‘나의 꿈, 나의 미래 이화여대’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방에 걸어놓았습니다. 그 종이를 보며 공부한 덕분에 친언니와 저는 이화인이라는 꿈을 이루었고, 이제는 저의 미래를 위해 또다시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화여대는 저의 평생 꿈 이자 저의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이화에서의 4년간의 배움은 더 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하다 집에 가는 길에 이화동산에 뜬 달을 보며 멋진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였고, 사회 곳곳에서 이화 DNA를 알리는 멋진 선배님들을 보며 선배님들을 따라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과 대에서 주최한 창의경진대회 프로젝트를 통해 타 전공생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체육 전공자로서 저의 전공 지식이 이화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화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며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과 이화의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님들이 주신 총동창회 장학금을 비롯하여 이화에서 받은 장학금 덕분에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이화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의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화에서 공학적 지식과 체육을 융합하여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이화의 명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 3. 1 ~ 2021.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5월 21일)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연기)
3. 제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연기)
4.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2일)
5.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29일)
 - 기념식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6. 졸업50주년(1970년 졸업), 졸업30주년(1990년 졸업) 동창 재상봉
7. ‘올해의 이화인’ 추대
8. 총장 초청 오찬과 합창제(취소)
9. 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대바자(9월 예정)
10.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예정)
11. 제19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11월 5일~8일, 미국 북텍사스)
12. 2020년 이화인의 밤(11월 30일)
13.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30일)
14. 이화 가족 성탄예배(12월 3일)
15. 정기임원회(매달 둘째 목요일)
16. 동창회보 158호~161호 발간(3, 6, 9, 12월)
17.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8.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9.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20.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1. 황화방 운영(연중)
22. 기타(이율 행사 외)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합창과 기도로 어우러진 은혜와 기쁨의 시간



5월 12일(화) 오후 3시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 선교부가 주관하는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가 개최되었다. 이번 감사찬양예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강당에서 열리지 못하고, 사전 제작한 영상을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장윤재 교목실장 집도의 예배, 2부는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 원장,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 정아영(소비자 11) 동창의 영상 기도 메시지, 3부는 한동대 교수 이지선(유교 01) 동창의 간증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23만 이화 동창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사회를 맡은 이정은(관현 16) 동창은 이화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소개하며 “이화의 사계를 축복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는 기도로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 찬송을 대신해 모교 음악대학 기도 공동체인 ‘뮤직포유’의 특별연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이어졌다. 이정은·최윤나(관현 16) 동창의 바이올린 선율이 조민지(피아노 15) 동창의 반주와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경건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이어 장윤재 교목실장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요한1서 4장 1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장 교목실장은 『이화 간호교육의 처음을 연 사람들, 마가렛 에드먼즈와 이정애』(이화간호과학연구소 기획, 2019)라는 책을 소개하며, 구한말 전염병과 선교사들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구한말 크게 유행한 콜레라는 높은 치사율로 가장 두려운 질병이었다면서 “134년 전 이화가 이 땅에 세워질 무렵, 무지와 미신과 공포에 사로잡혀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이민족 앞에 손 씻기를 외치며 목숨 걸고 용감하게 맞서 싸운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은 복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모교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 ‘이화그레이스콰이어’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특송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비대면 합창을 시도하였는데, 이국에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환자복을 입은 채로, 또는 희귀병을 앓으며 함께 찬양해 준 합창단원 30명의

장윤재 교목실장



찬양 영상은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피아노와 오르간 전주 영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30여 명의 단원들의 개별 영상이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가득 채워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 이화 공동체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단장인 최은희(종음 81) 동창과 이치복(종음 97) 동창의 지휘, 오르간 박옥주(종음 95) 동창, 피아노 김재희(종음 97) 동창, 솔로 이윤정(종음 96) 동창이 수고하였다.

이화의 기도처에서 영상으로 기도 메시지 전달

2부는 영상 메시지(영상 기도문)와 합심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이화의 기도 역사가 살아 있는 공간에서 영상 기도문을 올린 기획 의도가 돋보였고 감동이 오래 지속되었다.

모교 김혜숙 총장은 본관에 위치한 애다 기도실에서 오래된 나무 십자가와 기도 노트를 소개하며 이화의 오늘을 있게 한 하나님과 이화의 선배들께 감사드렸다. “팬데믹으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극복 기금 마련에 나섰다”면서 “이화의 가족들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동참해줄 것”을 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한 학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화가 디지털 시대에 여성 역량 강화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창들의 기도를 당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학당 초창기의 모습을 복원한 이화역사관에서 영상 기도를 전했다. 역사관의 기도실에 있는 ‘종 이야기’라는 글을 소개하며 “이 땅의 여성들이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받아 배움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며, “코로나 재난의 상황에서 이화의 이타적인 기독 정신을 이어받아 23만 동창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성혜옥 선교부장

정아영 동창

이어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 원장은 이대서울병원 안에 복원된 ‘보구녀관’에서 영상 기도를 전했다. “1887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을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들의 꿈과 소명을 계승해 이화의료원이 도전과 희망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달라”며,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양 병원 체계를 견고히 하여 코로나19의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해줄 것을 청하였다.

학생 대표 정아영 동창은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며 장애인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꿈이라는 말하는 것이 사치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마지막으로 성혜옥 선교부장은 다락방교회 예배실에서 동창들과 함께 합심기도 영상을 전했

다. “32년 전 총동창회 안에 선교부가 만들어진 이후 동창 선교사를 발굴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 매주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서 모여 기도드린다”면서 “세계에 흩어져 활동하는 동창 선교사들이 이화의 선교 사명을 잘 이어나가고, 후배들이 단기 선교 체험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길” 기도드렸다.

3부에서는 이정은 동창의 사회로 이지선 동창의 간증이 진행되었다. 이지선(유교 01) 동창은 모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전신 중화상을 입었으나, 30차례가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에세이집을 펴내 감동을 안겨준 바 있다. 얼굴 화상의 충격으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좌절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목소리는 ‘사랑하는 딸아’라고 밝히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는 이 동창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를 되새기며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 그 빛이 퍼져나가도록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이지선 동창은 힘든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다짐으로



희망과 도전의 상징인 이지선 동창(오른쪽)

간증을 마쳤다. 이정은 동창의 바이올린 연주로 3부 순서를 마무리하며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맙은 바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진심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이화 동창들의 또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감사찬양예배 영상은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KDljzlCduazbmhFuL-9mZQ>)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 '이화그레이스콰이어'의 감동적인 특송



음악대학 기도 공동체 '뮤직포유'의 특별 연주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장필화(영문 74) 동창 **한국여성재단 제4대 이사장 취임**

4월 3일(금) 한국여성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SNS 채널과 디지털 뉴스레터를 통해 취임사를 전했다. 장필화 동창은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학과 교수로 부임해 한국 여성학의 태동과 발전을 이끌었다.



최영애(기독 74)·최영아(의학 95) 동창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

최영애·최영아 동창이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인 최영애 동창은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첫 여성 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전문의로 재직 중인 최영아 동창은 지난 20년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두 동창은 5월 29일(금) 오전 11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김상희(제약 76) 동창 **첫 여성 국회부의장 당선**

6월 5일(금) 오전 열린 국회 첫 본회의에서 김상희 동창이 73년 현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당선되었다. 30여 년간 여성 시민운동에 주력해 온 4선 의원인 김 동창은 여성평우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에도 기여했다. 이후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6년 시민사회 대표로 장관급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석완(의학 76) 동창 **한국여자의사회 제30대 회장 취임**

성완산부인과 원장 윤석완 동창이 5월 9일(토)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한국여자의사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 동창은 그동안 여의사회 내부적으로 활발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에서도 리더로서의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김성진(화학 81) 동창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4월 21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김 성진 동창이 과학기술분야 포상 최고의 영예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훈하였다.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 동창은 융합과학분야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하여 왔다. 2004년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를 설립, 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모교 자연대학 학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현숙(행정 86) 동창 **IBK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기업은행 부행장 최현숙 동창이 3월 20일(금)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최 동창은 여신관리부장, 카드사업그룹장, 여신운영그룹장을 지내면서 기업 은행의 여신운영을 총괄했다.

이정민(경제 87) · 김희준(커미부 91) · 조현아(커미부 94) 동창

제20회 이화언론인상 수상

이화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20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정민

동창,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김희준 동창, KBS 예능센터 CP 조현아 동창이 선정되었다. 중앙일보 첫 여성 편집국장을 지난 이정민 동창과 YTN 첫 여성 특파원 출신인 김희준 동창은 여성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현아 동창은 〈열린음악회〉, 〈살림하는 남자들〉 등을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여성 최초로 KBS 예능센터 CP를 맡고 있다.



백미순(정외 89) 동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선임**

5월 28일(목) 백미순 동창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규정에 의거해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백 동창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한국성 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신동금(교공 90) 동창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연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해온 신동금 동창이 4월 9일(목) 실시된 임원 인사에서 부행장에 연임되었다. 신 동창은 1992년 모토로라코리아 교수설계 담당자로 경력을 시작한 뒤, 1999년 한국씨티은행에 인재개발 부장으로 입사하였다.



서혜진(사회 93) 동창 **TV조선 제작본부장 승진**

3월 22일(일) TV조선 예능국장 서혜진 동창이 제작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서 동창은 1997년 SBS에 입사해 〈놀라운 대회 스타킹〉,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 시즌 1, 2 등 예능 PD로 활약하고, TV조선으로 이직해 예능국장을 맡아 〈내일은 미스터트롯〉, 〈내 일은 미스트롯〉,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등을 제작, TV조선을 예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백희나(교공 95) 동창 **한국 최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수상**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동창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ALMA)'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은 『내 이름은 삐삐 룽스타킹』의 작가 린드그렌을 추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상으로 상금이 500만 스웨덴크로나(약 6억 465만 원)에 달한다.



손은진(사회 95) 동창 **메가스터디** 각자 대표 선임

3월 27일(금) 메가스터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손은진 동창이 메가스터디의 각자 대표로 신규 선임되었다. 손 동창은 지난 2000년 메가스터디 설립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 출판, 기획조정 등의 요직을 두루 총괄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메가스터디의 자회사 메가푸드앤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 회사를 성장궤도에 올려놓으며 경영 능력을 검증받았다.



임상민(사학 03) 동창 **대상그룹** 상무 승진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차녀이자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임상민 동창이 상무로 승진하였다. 임 동창은 그동안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프로젝트 검토 등 실무를 담당했으며, 대상그룹의 지주사인 대상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지분 38.36%를 소유하고 있다.



박정자(커미부 04) 동창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로상 수상

5월 19일(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시상식으로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우리은행·재단법인 선현·KFC가 후원하고 있다. '연극계 대모'이자 한국 연극계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도 불리는 배우 박정자 동창은 1962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쉼 없이 무대 위에 서 왔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화 동창

20대 국회에서 8명이었던 국회의원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11명으로 늘었다(학부 졸업 기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김상희(제약 76, 부천병) / 서영교(정외 88, 중랑갑) / 인재근(사회 77, 도봉갑) / 강선우(영교 77, 강서갑) / 양정숙(법학 87, 비례)
-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김은혜(커미부 93, 성남분당갑) / 김정재(정외 88, 포항북) / 황보승희(영문 01, 부산중영도) / 서정숙(약학 74, 비례) / 윤주경(화학 81, 비례)
- ▲정의당: 류호정(사회 16, 비례)



김상희



서영교



인재근



강선우



양정숙



김은혜



김정재



황보승희



서정숙



윤주경



류호정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폐인 재능 재활 기업 오티스타 대표
이소현 동창

자폐인들도 넉넉히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12명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꿈이 펼쳐지는 곳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톡톡 튀는 색감의 물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 바로 ‘오티스타 갤러리 & 스토어’다. 휴대폰 액세서리에서부터 잡지와 사보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오티스타가 만들어낸 제품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이곳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의 손을 거쳐 제작된 창작물들이다.

오티스타(Autistar)가 남다른 이유는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난다. ‘자폐(Autism) 장애인의 재능(Talents)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해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2명의 솜씨 좋은 자폐인 디자이너를 포함해 18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티스타는 2012년 8월 문을 연 사회적 기업이다.

오티스타의 설립자이자 모교 특수교육과 교수인 이소현(특교 83) 동창은 마침 찾아간 날이 새로운 갤러리 오프닝 행사와 기념 예배가 있는 날인 데다 갤러리 화장 후 첫 매스컴 인터뷰라며 반가운 인사말을 전했다. 이 동창은 특수교육이 무슨 학문인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절, 상위권 학과에 가길 기대하는 학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교 특수교육학과 79학번으로 입학했다. 처음부터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딸을 이해하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부모님 덕분이었다.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로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동창은 1993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특수교육자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또한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에 평생을 조기 특수교육에 대해 강조해 왔다. 하지만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적응해 나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재



오티스타 갤러리 스토어

가(在家) 장애인이 되어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했던 것이다.

디자인 전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러던 차에 SK플래닛 사회공헌팀을 만나게 되었다. 이 동창은 평소 “국가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형태의 복지가 이루 어져야 한다. 국가가 못하면 대기업에서라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터라,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반가웠다.

2012년 5월에 시작된 산학협력 연구는 자폐인의 재능 재활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보여 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제품을 제작해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시제품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고는 그해 8월, 회사가 뭔지도 모른 채 ‘겁도 없이’ 오티스타를 창업했다. 연구 프로젝트로 운영 중이던 디자인스쿨 교육생을 1호 디자이너로 채용해 회사를 꾸려나갔다. 같은 해 11월에는 ‘디자인 상품 제작을 위한 자폐인 그림 공모전’을 열었다. 이때 600여 점의 그림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20점을 선발, 여러 상

품으로 제작해 12월에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여운 동물 캐릭터와 알록달록 색을 입힌 식물 그림 등, ‘이렇게 예쁜 물건을 장애인들이 디자인했다니!’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그 후 매년 모교 ECC 이삼봉홀 등에서 전시회를 열어 작년 2019년에는 8회째를 맞았다. 전시회는 비용뿐만 아니라 품도 많이 드는 일이 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폐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전시회만큼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자폐인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 백 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직접 그들이 만든 예쁜 물건을 보고 실제로 자폐인 디자이너들을 만나면 바로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자폐인들도 넉넉히 일할 수 있음을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많은 사회생활 기술들은 사실, 장애인들이 사회에 흡수되어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많이 습득된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고, 실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도록 기회



오티스타 디자인전(ECC 이삼봉홀, 2018)

를 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 특수교육 전공자인 이 동창도 그런 모습에 깜짝 당황하곤 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라고.

오티스타는 사실 모든 직원이 자폐성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데 특화된 회사다. 장애인들에게는 최상의 근무환경인 셈. 이 동창을 포함해 4명의 모교 출신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포진해 있는 덕분이다. 게다가 이익을 내는 대신 장애인도 일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데 목적을 둔 모델 회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다른 회사가 모두 이런 환경은 아니라는 데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행동과 활동 범위, 관심 영역이 제한적이며, 감각적으로 예민하다는 자폐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그들의 실수를 무조건 받아 주는 것도 해답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반 직원들이 그들의 특성에 대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 채용 기업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기에, 오티스타는 디자인스쿨에서 교육받은 자폐인들이 다른 회사에 디자이너로 채용되도록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으로, 직무 지도 담당자들을 해당 회사에 파견해 일반 직원 면담과 장애인 직원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협업을 통해 재탄생하는 오티스타의 디자인

직원들의 예술성을 살려 주는 오티스타만의 노하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말 그대로 ‘노 터치’다. 그들 안에 잠재된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터득한 오티스타 나름의 철칙이다.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준도 분명하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림 그리기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자폐인은 뇌 특성상 모든 사물을 사진찍듯이 기억하는 시각적 학습자들이다. 이처럼 시각적 정보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 놓는 독특한 특성은 사물의 디테일을 정확히 잡아내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오티스타는 지난 몇 달간 호암재단의 의뢰로 150여 명의 역대 호암상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책

의 내지 일러스트와 표지 디자인을 작업했다. 이 동창은 “우리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 그 많은 얼굴 사진을 세밀히 관찰하고는 각각의 특징을 잡아내서 모두 개성적인 인물로 묘사해내더라”며 자폐인 디자이너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오티스타는 이처럼 일반 기업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처음에는 이 동창이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차츰 자폐인의 재능 재활이라는 오티스타의 취지에 공감하고 오티스타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먼저 연락해 왔다. SK·삼성·롯데·신세계·이랜드·한국문화재단·호암재단 등을 비롯해 하반기에는 생활용품 기업 다이소 및 천연화장품 기업 ‘아이소이’와의 공동작업도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이 동창은 아이소이와의 ‘컬래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이소이 대표 이진민(국문 86) 동창이 오티스타 갤러리에도 직접 방문해 이곳의 분위기와 디자인을 꼼꼼히 둘러볼 만큼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

2016년부터는 ‘두 번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티스타를 돋고 싶어하는 200여 후원자 또는 기업이 오티스타에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써 첫 번째 나눔이 이루어지고, 오티스타가 그 후 원금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시설과 세계 곳곳의 선교지 등에 물품을 보내 주면서 두 번째 나눔이 실현되었다. 모교 총동창회 선교부를 통해서도 모교 출신 선교사들의 사역지에 물품이 보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설립된 이화스렁학교에도 몇 차례에 걸쳐 물품이 기부되었다.

이 동창은 모델 기업으로 시작한 오티스타가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해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존재해야 할 당위성도 보여 주었다는 뿌듯함도 가지고 있다.



오티스타 디자인팀(위)
오티스타 디자인전에서 직원들과 함께(2019)(아래)

이 동창의 간절한 바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자폐인들이 이들을 이해해 주는 기업과 사회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티스타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동창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오티스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역할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간다 자폐인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오티스타 모델 보급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이다. “일반 회사에 장애인들도 스스럼없이 채용되어 일하는 것, 이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라는 이 동창의 마지막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비건 식당 '베지베어' 공동 대표
고다현·조은하 동창과 민성주 재학생

외식 분야 창업에 과감히 도전장 던진 겁 없는 청년들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날, 날씨만큼이나 상큼하고 풋풋한 3명의 동창을 만나러 신촌 '박스퀘어(신촌역로 22-5)'의 청년키움식당 '베지베어'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곳 2층에는 16개의 '청년 점포'가 입주해 있다. 서둘러 베지베어에 도착하니 앳된 젊은이가 등을 돌린 채 의식을 치르듯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는 앞치마를 두른다. 이런 걸 비장이라고 하나? 잠시 후 부지런히 채소를 썰더니 화구 앞에서 힘차게 '웍질'을 한다. 한눈에도 아무진 패기가 전해진다.

나만의 식당 차린 당돌한 사장님들

고다현(식영 20)·조은하(소비자 20) 동창과 민성주(융합콘텐츠 16학번) 재학생은 2019년 12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비건 식당 '베지베어'의 공동 대표들이다.

청년키움식당은 외식 분야 예비 창업자들에게 미리 가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19년에는 모교가 서대문구, aT, 외식창업 컨설팅 업체 후앤파트너스와 손잡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모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대문구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박스퀘어를 제공하고, 후앤파트너스에서는 음식점 경영 컨설팅을 도왔다. 베지베어 팀은 2019년 2월, 일곱 팀을 선발하는 이 사업 공모에 지원했고, 서류 심사와 조리 심사를 거쳐 당당히 선정됐다. 선정된 후 4월 한 달 동안 박스퀘어에 팝업스토어를 차려 실제로 매장을 운영해 보고, 사업장 임대료와 교육, 컨설팅, 주방기구, 홍보비 등의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특히 홍보와 메뉴 개발에서 "모교 식품영양학과 조미숙·오지은 교수 등 모교의 지원이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 매출에서 재료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팀원 다섯 명이 순이익을 분배

했어요. 난생처음 ‘내 사업’으로 번 돈이었죠. 다섯 명 중 세 명이 새롭게 창업하기로 하고 지난 해 9월 이곳에 정식 입점하게 되었어요.” 창업 당시를 설명하는 조은하 동창의 얼굴에서 뿌듯함이 읽힌다. 셋 모두 ‘당연히 남들처럼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겠지’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뜻 창업을 택했다. “왜 졸업하자마자 뜬금없이 창업이냐, 그것도 고되고 힘들다는 식당이냐”며 황당해하는 부모님에게 “직장 생활은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은 지금이 아니면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당돌하게 대답했다.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로바로 평가받는 경험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겐 흥미로운 세계였다. 좌충우돌 부딪혀가며 내 사업을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게다가 팀워크까지 잘 맞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맛없는 ‘풀때기’라는 선입견을 뒤집은 참신한 메뉴들

요리하는 손놀림이 전문 셰프 같다는 말에 조 동창은 쑥스러운 듯 “카메라 앞이라 더 열심히 했다”고 너스레를 떤다. 사실 팝업스토어를 열기 전 모든 팀원이 기본적인 조리 실습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리 실력을 키웠지만, 초기에는 칼질도 서툴고 불을 다루는 것도 익숙지 않아 여기저기 베이고 데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행스럽게도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손님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찾아준 덕분에 조리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대기술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으니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청년키움식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비결은 뭘까? 고다현 동창은 “대부분 청년창업식당의 메뉴가 육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저희는 대학가에 만연한 육식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만의 비거리즘을 알리면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한다. 고 동창의 설명대로 심사위원들도 “최근 다양해지는 소비 층을 분석해 채식 특화 메뉴 개발과 SNS를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고 평했다.

사실 이들은 모교 재학 때부터 환경권, 동물권과 관련된 비거리즘에 관심이 많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어떻게 비거리즘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청년키움식당’ 지원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이거야’ 하는 의기투합



신촌 ‘박스퀘어’ 외관

으로 바뀌었다. ‘비건 메뉴’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기로 한 것. 고객들도 비건 식당을 내세운 베지베어의 뜻에 공감하고 비건 음식을 먹어 보고는 맛없는 ‘풀때기’ 그 이상임을 알아봐 준다.

베지베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베지베어의 메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대표 메뉴는 이름도 기발한 ‘된장이불’과 ‘고추장이불’. 밥에 채소를 볶아서 얹고 여기에 ‘소스가 밥을 덮는다’라는 의미로 된장과 고추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가지·애호박·당근 등 특별할 것도 없는 제철 채소에 고추장, 된장을 곁들여 먹는 것인데, 고객들은 “먹다 보면 은근 중독성도 있고 밥과 채소가 주재료여서 먹은 후에는 속이 편안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또 콩으로 만든 ‘베지함박스테이크’도 고객들이 꾸준히 찾는 인기 메뉴다. 얼마 전에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수제 비건 치즈로 만든 ‘네모피자’를 시범 출시했다. 여름철에 맞춰 비빔면이나 시원한 메뉴를 만들어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시도 쉴 틈 없는 빠빠 한 일정에도 신 메뉴 개발만큼은 손에서 놓을 수 없단다. 천생 부지런한 청년들이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대문구 14개 동 265명의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게 1일 1식 도시락을 지원하는 ‘도시락 배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던 다른 청년식당들과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주 메뉴로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배달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에서 주소지를 찾느라 애를 먹었지만, 자신들의 도시락을 받아 들고 고마워하는 할머니들을 보면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소중한 경험도 했다.

완벽히 맞춰진 퍼즐 같은 3인 3색의 조합

셋 가운데 조리 실력이나 메뉴 개발에서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은 조 동창은 효율적 매장 운영과 신 메뉴 개발을 맡았다. 조 동창은 “처음에는 맛을 잡기가 가장 어려웠다”며 끊임없이 새로

청년키움식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2019.12)



제1회 정부혁신 박람회 부스체험 중(DDP, 2019.11)



운 맛을 찾아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식영과 출신으로 평소 외식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고 동창은 세무·회계·소비자 분석 등 외식 경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비거리즘 실천 팀원으로 베지베어의 메뉴나 마케팅이 비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점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민성주 재학생은 전공을 살려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에도 남다른 끼를 발휘하고 있다. 모자란 조각 없이 완벽히 맞춰진 퍼즐처럼 3인 3색의 조합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곳의 매장은 재계약 없이 3년 임대로 운영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사업을 끝내는 팀도 있다. 베지베어의 경우 앞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새로운 사업 구상을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오프라인 매장 하나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젊은 사장들은 최근 좀 더 확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 중이다.

조은하 동창은 이곳이 대학가인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메시지나 비거리즘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데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매장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달이나 주문을 통해서도 우리 메뉴를 먹을 수 있도록 유통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라고 옹골찬 포부를 밝힌다. 식영과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다현 동창은 공부와 사업을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대학원 프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기업 대표님들을 통해 자신들이 준비한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을 더 발전시키는 ‘빅피치’를 그리고 있다. 기회만 된다면 체인점도 내고 싶다는 민성주 재학생은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회와 능력이 허락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볼 것”을 ‘강력추천’ 했다. 도전으로 얻은 뜻밖의 경험들은 젊음의 훈장이다. 심지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뭔가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들에게는 ‘젊음’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다. 그리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도 쌓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신 메뉴 개발과 사업 아이템 구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톡톡 튀는 그들만의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님을 확신한다. 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베지베어의 대표 메뉴들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라



메르세데스-벤츠(이하 MB) 공식 딜러 (주)모터원(www.motorone.co.kr)은 11개 딜러 법인 중 매출 순위 4위인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터원은 서울 및 경기 서북부권역을 맡아, 일산·의정부·파주·고양의 전시장을 비롯해 일산 성석동의 모터원 인증 중고차(벤츠 공식 인증 점검을 거쳐 판매되는 중고차 매장) 전시장까지 총 5개의 전시장과 총 6개의 서비스센터, 그리고 3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모터원 부사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손혜경(사회과교육 80) 동창은 사실 처음부터 사업에 소질이 있었던 건 아니다. 모교 졸업 후 동구여상에서 24년간 교직에 있던 손 동창은 회사로 불러들인 건 일찌감치 사업 전선에서 뛰고 있던 남동생(모터원 손영호 대표이사)이었다.

“네가 서 있는 곳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

학창 시절의 추억에 대해 묻자, “채플 시간에 김옥길 총장님으로부터 ‘네가 서 있는 곳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대학 졸업 후 어려운 고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늘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학창 시절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 배웠다고 믿습니다”라며 이화에서의 경험에 현재 손 동창의 삶에 큰 영양분이 되고 있음을 고백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터라 손 동창은 정글 같은 사업 현장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3년 모터원에 합류한 뒤로는 손 동창만의 꼼꼼한 성품과 탁월한 설득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자금 및 위기관리를 도맡고 있다. 사업을 하며 깨달은 나름의 경영 철학에 대해 손 동창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고 하

면 성공에 다다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마음보다는 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관계사(주)쏘나브이피씨코리아도 손 동창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입항된 수입차량의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차량 정비와 출고 준비를 하는 물류 공장이다.

“쏘나와 모터원, 양 법인을 오가며 일하는 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동네 길보다 더 익숙합니다. 늦은 시각 화성과 일산을 오르내리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벤츠의 뛰어난 성능 덕분에 살았던 생생한 경험도 있습니다. 17여 년간 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새해 새벽과 명절 아침을 맞아야 할 정도로 연중무휴 일에만 집중했던 남다른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회고하는 손 동창의 말에서 벤츠에 대한 자부심뿐 아니라 지금의 모터원을 만들어낸 저력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경기 서북부 랜드마크, 모터원 고양 전시장

모터원의 고양 전시장으로 인터뷰를 하러 간 날, 마침 그곳에서 ‘비전 EQS 콘셉트카 발표회’(5월 13일(수)부터 20일(수)까지)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전 EQS’ 차량은 2021년 시판을 앞두고 있는 벤츠의 차세대 미래 전기차로 S클래스급 대형 전기 세단의 미래 디자인을 제시한 모델이다. ‘콘셉트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시 차량들 중 단연 돋보였다. 디자인이며 소재가 어찌나 고급스러워 보였는지 문외한의 눈에도 단박에 고품질 차량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4월 28일(화) 기준의 고양 전시장을 확장 이전한 뒤 열린 첫 공식 행사이다. 최대 29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연면적 1만 8,328 제곱미터(약 5,544평), 총 11층 규모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터원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련되고 웅장한 고양 전시장 건물의 외관은 먼 발치에서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압도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전시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말이 실감났다. 각별히 경기 서북부 권역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짓기로 벤츠 본사와 협의했다. 2층 서비스센터, 3층 출고장, 4~8층 주차장(약 300대 주차), 9~10층 전시장으로 꾸며 차량 구매 상담과 계약뿐 아니라 차량 출고와 점검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층과 10층에 전시장을 배치한 것은 모터원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전시장이 자리잡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가 통유리 너머로 훤히 내다보이는 유품 전망에다, 밤에는 대형 스타일의 화려한 불빛과 함께 벤츠의 CI가 큰 창을 통해 바깥에까지 반사되어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안내를 받은 곳은 9, 10층

2019년 이화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기증을 기념하며





10층에서 내려다본 9층 전시장. 오른쪽이 블랙 유리의 대형 스타월이다

전시장. 고급스런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리셉션 구역과 웰컴 존에서부터 벤츠의 아름답고 웅장한 멋을 구현한 검은색 유리의 대형 스타월,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이 설치된 6곳의 컨설팅룸,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MB카페, 자녀 동반 고객을 위한 키즈룸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손 동창은 “이번 고양 전시장 오픈 준비 과정에는 단순한 영업을 넘어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려는 숨은 노력이 녹아 있어 보람차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고양 전시장 투어를 맡은 관리지원부 영업 관리팀의 허선 팀장에 대해 손 동창은 “고양 전시장 오픈 실무 담당자로 전시장 설계부터 MB코리아와의 디자인 협의까지 전체를 총괄했으며 이번 주 EQS 공개 행사를 준비한 책임자”라고 소개하고는 “실은 저의 작은아들”이라고 살짝 귀띔했다. 안내받는 내내 손 동창이 왜 그렇게 대견스러워했는지 절로 이해가 갔다. 믿음직한 구원투수가 손 동창을 돋고 있는 듯했다.

9층의 EQ(전기차)존에는 작년 11월에 처음 출시

된 벤츠의 순수전기차 EQC 차량을 비롯해 MB의 대표 차량인 C클래스, E클래스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편, 10층 전시실에는 S클래스와 AMG(고성능 차량)이 전시된 AMG 퍼포먼스센터가 있었다. 허 팀장은 “최근에는 벤츠의 일반적인 모델보다 고성능이나 특별한 외관을 갖춘 차량을 찾는 고객이 많아 AMG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며 “AMG의 사각머플러팁이나 지프처럼 인기 차종은 계약 대기가 많아서 전시할 차조차도 없는 실정이라 어떻게든 공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시장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수도권 최초로 운영되는 익스클루시브(Exclusive) 라운지였다. 마이바흐 고객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더욱 고급스럽고 안락한 환경에서 마이바흐 모델을 살펴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이날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S650 마이바흐’ 차량을 관람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다음 안내된 3층의 출고장은 모든 계약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차량을 인도받는 곳이다. 이곳에도 모터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숨어 있다. 벽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차를 선물 받는 사람에게 영

상편지를 띠우거나 차 트렁크에 꽃을 한가득 채워 놓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2층의 서비스센터에는 순수전기차 EQC 전용 수리가 가능한 전문 기술자와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고 있었다. 전시장 내에 자체 서비스센터까지 갖춘 셈.

임직원들, “내게 가장 소중한 모터원의 보석”

손 동창은 모터원이 다른 딜러사인 한성이나 효성처럼 대기업이 아니면서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회사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11년째 각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의 지점장들을 일컬어 “내게 가장 소중한 모터원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책임을 다하며 운영해 주기에 모터원이 있다”는 말로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내비쳤다.

한편 모터원은 그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해 왔다. 올 3월 25일(수) 모교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기증(벤츠 C-클래스)과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 모교 ‘그린영상제’ 후원을 비롯해, 2019년 5월에 열렸던 마라톤 행사 ‘기브앤레이스(GIVE ’N RACE)’ 캠페인, 국악페스티벌을 펼치는 ‘노름마치예술단’ 후원, 지역 고양신문사와 연계

한 청소년 ‘꿈페스티벌’ 후원, 지역 내 요양병원 어르신들께 무릎담요 기증 등에 이어 개인적으로도 나눔문화 10년 장기후원, 개척자, 어린이재단, 우금치, 청암사, 성심어린이집, 이화 해피펀드 등에도 후원 중이다.

“모터원도 저 자신도 그간 소중한 도움의 손길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현재 ‘기부와 나눔’을 실천 중이고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꿈이 있다”는 손 동창은 “언젠가 사업 현장을 떠난 후에는 이화를 나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그리는 문화재단 설립과 사회복지 활동을 준비하려 한다”고 마음속에 품은 계획을 털어놨다.

손 동창은 지난 17년간 모터원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늘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위기를 돌파했던” 소중한 경험을 소개했다. 마지막 순간 해결사처럼 나타나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의 명함에 전부 ‘수호천사’라고 적어 놨단다.

사업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손 동창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는 초인적인 힘으로 집중하여 ‘위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이 처한 곳을 빛나게 하려는 자세가 다른 사람도, 자신도 빛나게 하고 결국 회사도 빛나게 한다는 손 동창의 힘 있는 말이 후배들의 삶에 귀한 교훈이 되리라 믿는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김순영 고문 퇴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동창회 고문으로 재임하며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한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이 총동창회 고문직에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4월 23일(목) 열린 정기임원회에서 퇴임사를 전한 김순영 전 고문은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100년사』를 만들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총동창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이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전 고문은 “학교 다닐 때 김활란·김옥길 총장님 이취임식 때 김활란 전 총장님이 ‘간다 간다 나는 간다/간다 한들 아주 가며/간다 한들 너를 잊을 소냐’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면 이화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에피소드를 전하며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시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를 대변하는 것 같다”며 꽃다발과 박수 속에 퇴임 소감을 밝혔다.

김순영 전 고문은 총동창회장 재임 기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 대바자회, 문화특강, 대음악회 개최(2008년), 메리 스 크랜튼 선생님 서거 100주년 추모 행사(2009년),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100년사(1908~2008)』 발간(2010년) 등 업적을 남겼다.



정기임원회의 및 부장회의 개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정기임원회 일정을 연기한 총동창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뀐 즈음인 4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기임원회를 열고 임원들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위해 전날 회의장 방역을 마친 데 이어 임원들은 입장 전부터

발열 체크와 문진, 마스크 쓰기를 꼼꼼히 지키고 자리를 띠어 앉는 등 방역에도 신경 썼다.

이날 주요 의제인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이 이루어졌고, 3월에 예정이었던 정기총회 개최 날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5월 29 일(금)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진행 보고와 의견 청취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로 김해련(경영 84) 동창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감사찬양예배와 동창의 날 행사는 예년처럼 많은 이화 동창들이 교정의 봄을 즐기고 이화 창립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대신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무관중·비대면 행사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총동창회 부장단은 3월 26일(목)과 5월 12

일(화)에도 각각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부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되고 있는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임원회 및 과·지회장 간담회 개최 여부, 정기총회 개최 여부, 동창의 날 행사 개최 여부, 사업계획안 상 일정들에 대한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념품 제작, 평생회비와 연회비 지로용지 제작, 《이화동창》 편지봉투 제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의 이화인 49명 환영식

2020년 5월 1일(금)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0년도 올해의 이화인 49명을 환영하는 모임이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서 성혜옥 선교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택하는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에 평강이 머물기를 바란다”며 “올해의 이화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기도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모교에서 나눔과 헌신의 이화 정신을 배운 23만 이화 동창들이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덕분에 이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여기 모인 올해의 이화인들은 23만 동창 중 1,2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축복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서 졸업 50주년 행사 때 더 멋진 이화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각 과를 대표하는 올해의 이화인으로서 평생 한 번 있는 명예로운 자리의 주인공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한미경 총무는 “1991년부터 이어진 올해의 이화인이 올해 30기를 배출하게 되었다”면서 영상 자료로 준비한 올해의 이화인 연혁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추대된 이화인들이 자기소개를 한 뒤 2017 올해의 이화인 대표 우숙영(파아노 87) 동창

및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의 이올(올해의 이화인 연합모임) 소개, 이명경 부회장의 향후 일정 소개가 이어졌다. 올해 추대된 30기 올해의 이화인 49명은 5월 29일(금)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추대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학생 돋기 성금에 적극 나서

총동창회는 4월 10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모교 대외협력처(처장 최유미)가 진행한 ‘코로나 19 극복 긴급 모금’에 적극 동참해, 6,141만 원을 모금하여 6월 1일(월) 모교 대외협력처에 기부했다. 이번 긴급 모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

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캠페인으로, 모금액은 부모님의 실직, 본인의 아르바이트 중단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힘내라 이화’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총동창회는 이메일, 문자, SNS,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성원과 동창, 후원자들에게 모금 동참을 요청했으며 모금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이화 동창들이 참여하여 후배 재학생 돋기에 나설 수 있었다.

‘빛나는 이화인 상’에 김해련 동창 선정

총동창회는 2020년 4월 16일(목) 12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김영주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한미경 총무, 박병희 문화부장, 이영희 홍보부장)를 열고 올해 5회째인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로 태경그룹 회장 김해련(경영 84) 동창을 선정했다.

김해련 동창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위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이다.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Pace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뉴욕FIT에서 패션

디자인 학사를 받았으며, 국내 최초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키워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이자,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국내 1위의 무기화학 기초 소재 산업인 태경그룹 회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김해련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송원김영환장학재단’은 1983년 설립 이후 4,000여 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총동창회는 창립 130주년을 맞은 지난 2016년 ‘빛나는 이화인’상을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 발행과 동창 선교사 소개

2020년 3월, 20번째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이 발행되었다.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령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긴 귀한 책이다. 한국에 귀국하여 사역 보고를 하는 동창 선교사들마다 기도수첩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소식을 전

하여 주는데 하나님은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수첩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올해 기도수첩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지 선교사의 경우, 2019년 132명이었는데 올해 144명이 되었다. 그중에는 새롭게 등재된 7명의 동창 선교사와 안식년에서 복귀한 선교사가 있다. 둘째 은퇴 선교사는 2019년 2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5명이 되었다. 소천한 선교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7명이다.



• 올해 새롭게 등재된 동창 선교사 •

1. 강병옥(과교 93) / 남편 : 박종승 / 자녀 : 지윤(21세), 지나(20세)

강병옥 선교사는 1997년에 GP(Global Partners)선교회에서 말레이시아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사역 및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해오고 있다.

- E-mail : paulinekang33@gmail.com
-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990-090818-733 박종승, 강병옥
- 기도 제목
 - 1) 2020년 주 안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 2) 2020년 훈련원 사역을 위해서-타 문화 적응 수습선교사 훈련(2~6월), 경력개발 훈련(7월 초), GP선교회 허입 선교사 경력 훈련(7월 중순~8월 초), Leadership Conference(9월 중순), 훈련을 통해 사역지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로 갖추어 가도록,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 3) GPTC가 GP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위한 훈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훈련을 설계 중인데 함께 동역할 단체와 사람들, 스태프를 보내 주시도록, 훈련원 리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4) 카이로스 센터와 FBC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제니 가족, 카센드라 가족을 잘 돋도록

5) 타 지역에서 학업 중인 자녀들의 건강, 학업의 이해, 축복의 통로 되는 삶을 위해

2. 김무용(의직 89) / 남편 : 임재량 / 자녀 : 주현(23세), 주하(20세), 주민(17세)

김무용 선교사는 2017년에 인터서브코리아에서 캐나다로 파송을 받아 종족 교회 개척 및 난민 사역을 해오고 있다.

- E-mail : mykim6735@gmail.com
-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079-04-0000213-1 김무용
- 기도 제목
 - 1)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 2) 디아스포라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배가를 위한 키맨들을 만나도록
 - 3) 야지디족, 쿠르드족, 티벳탄 및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네팔리스, 시리안 종족 교회들이 잘 개척되어 홈랜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 4) BLESS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3. 김지윤(성약 07) / 남편 : 나요셉 / 자녀 : 하진(9세), 하영(7세), 하은(6세)

김지윤 선교사는 2016년에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서 일본삿포로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 E-mail : nayosep83@naver.com
-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539-910348-26807 나요셉
- 기도 제목

 - 1) 저희 부부가 매일 삶,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 2) 2020년부터 새롭게 담당하게 될 모미지다이 오아시스 교회의 사역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도록(영어사역, 찬양사역, 목회사역)
 - 3) 4년 동안 건물 없이 구민센터를 빌려서 예배드렸던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의 건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컨테이너 하우스 건축 예정).
 - 4) 하진이가 일본 현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고, 하영, 하은이의 유치원 생활도 날마다 즐겁게 하여 주시도록.
 - 5) 긴 겨울(6개월), 제설 작업으로 체력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도록.

4. 민혜준(통계 92) / 남편 : 이윤수 / 자녀 : 예인(23세), 동혁(21세)

민혜준 선교사는 2005년에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캄보디아 장로교신학대학교, 유치원 등 교육 사역 및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 E-mail : waterhill69@gmail.com
-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990-014704-446 KPM 이윤수
- 기도 제목

 1. 실력, 인격, 영성이 성장하는 선교사 되기를
 2. 캄장신, 벤엘 교회 4곳, 유나 유치원이 캄보디아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기를
 3. 자녀들 학업에 훌륭한 결과가 있기를
 4. 양가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5. 모든 동역자, 협력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받기를

5. 엄옥희(영문 86) / 남편 : 안승준 / 자녀 : 영주(29세), 덕주(26세), 찬주(24세)

엄옥희 선교사는 2014년에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에서 우간다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현지 목회자 양성 및 재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

- E-mail : ohahn2007@gmail.com
- 후원계좌 : IBK기업은행 081001096-01-067 안인건
- 기도 제목

 - 1) 학교의 캠퍼스 이전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부지 분쟁이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 2)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사역하도록
 - 3)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6. 은소피아(영문 01) / 남편 : 이데이브 / 자녀 : 여준(10세)

은소피아 선교사는 2019년에 GMS에서 오만(중동)으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오만 대학 한국학과 교수 사역을 해오고 있다.

- E-mail : silverwhite0@hanmail.net
- 후원계좌 : KEB 하나은행 920-982397-101 GMS 이데이브, 은소피아
- 기도 제목

 - 1) 아랍어를 배우는 동안 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 2) 아들이 현지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 3) 언어훈련 후 오만 대학 내 한국학과 교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7. 이자유(의학 04) / 남편 : 이진리 / 자녀 : 연우(14세)

이자유 선교사는 2018년에 WEC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파송을 받아 현재까지 엘디가정의학과에서 현지인 진료, 현지의사 트레이닝 사역을 해오고 있다.

- E-mail : driim77@naver.com
-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990-089612-163 이성종, 이소윤 (WEC)
- 기도 제목

 - 1) 올해부터 시작한 진료사역을 잘 감당할 체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 2) 더욱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 3) 아들 연우가 타지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 4) 남편 이진리의 치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현지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2020학년도 공립 교사임용시험에 이화인 300명 합격

2020학년도 공립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결과 모교 동창 3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 중등교사의 경우 190명, 초등교사 53명, 유치원교사 27명이 합격했으며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는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특수교육 부문 합격자가 전년(27명) 대비 159% 상승한 43명에 이르며 강세를 보였다. 또한 가정, 정보·컴퓨터, 사서, 영양 교사 부문에서도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도 지역별 수석 및 차석 합격이 이어졌다. 2016학년도부터 4년 연속 서울 지역 특수교육 분야 수석을 배출해 온 특수교육과는 2020학년도에도 서울 지역 유아특수교육 수석(임주혜, 특교 20), 초등특수교육 수석(고은석, 특교 20) 및 차석(김승연, 특교 20)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권정현(유교 12) 동창은 유아교육 수석, 이성경(과교 20) 동창은 지구과학교육 수석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김혜민(과교 20) 동창이 물리교육 수석으로, 손정은(과교 11) 동창이 지구과학교육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황하영(교대원 음악교육전공 20) 동창이 음악교육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양성평등 부문 국내 대학 1위

‘THE 세계대학평가’ 대학 영향력 순위 양성평등 부문에서 모교가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 가 주관하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QS세계대학 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랭킹으로 평

가받고 있다.

모교는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한 ‘양성평등’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 세계 대학 50위를 기록했다. 또한 모교는 ‘빈곤 종식’ 부문에서 국내 대학 2위, 세계 66위를 차지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업지원 프로그램, 빈곤 구제를 위한 지역사회 협업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모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화플러

스 장학금을 2018년 신설하고, 등록금 수입 총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2017년 기준)하는 등 학생 복지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학부생 1인당 수혜 장학금이 주요 10대 대학 중 2위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증진과 웰빙’ 부문에서도 국내 대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교는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이자 여성 의학 교육기관의 효시인 보구녀관을 설립하고, 꾸준히 여성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증진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소명 의식을 계승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보건협력 및 여성 역량 강화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탁월한 근무환경과 노동권 보호 등에 관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부문과 정부 및 비

정부 기구와의 관계 및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부문에서도 국내 대학 공동 5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연구 업적뿐 아니라 사회기여 측면에서도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통해 공헌하고 있다.

김혜숙 총장은 “134년 전 교육을 통해 여성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부단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이화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 여성들을 위한 여성 리더십 확립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화는 우리 사회가 성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열리게 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변호사시험’ 98명 합격 및 신임 재판연구원 4명, 신임 검사 3명 배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모교 졸업생 98명이 최종 합격했다. 입학 정원(100명) 대비 합격률 98%에 달하는 수치로, 작년(95명)에 이어 좋은 성과를 냈다. 법무부가 4월 24일(금)에 공개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68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12%이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응시자 대비 63.23%, 누적입학정원(1~9회) 대비 86.4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초시 합격률 80.23%,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98% 등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또한 2012년~2020년 변호사시험 통틀어 입학인원 대비 누적 합격률 86.44%를 기록했으며, 매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종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입학정원이 100명인 상황에서 작년에 95명이 합격



하였고, 올해는 98명이 합격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금) 대법원이 발표한 신임 재판연구원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졸업생 김한라·민수정·이예지·조선 동창이 임용됐다.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자들 중 시험을 통해 선발,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재판연구원은 예비법관으로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11일(월) 임관식을 거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졸업생 김소연·이혜진·임지혜 동창이 신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약 9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신판례특강, 시험연습프로그램, 튜터링, 변시자료실 운영, 스터디 지원, 재학생의 약 70%를 수용할 수 있는 솟을관 기

숙사 운영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배 초청 취업 간담회, 법무법인 설명회, 검사 및 재판연구원 면접 대비 특강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교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현 법학자, 현법재판관, 법제처장 등 한국 법조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으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 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로스쿨이 도입되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상위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2019년 진행된 법관 임용에서 총 13명의 법관을 배출해 전국 로스쿨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식 개최

모교는 5월 29일(금)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창립 1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장명수 이사장과 김혜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장윤재 교목실장, 표창 수여 및 수상자 등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해 관중이 없는 행사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혜숙 총장은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우 이례적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뜻깊은 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명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기념식사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TELOS 전공 트랙 및 교육대학원의 AI 융합교육전공 신설, 개원 1년을 맞은 이대서울 병원 소식 등 지난 1년 이화가 이룬 성과들을 공유하고 ‘최고의 교육’과 ‘차별화되고 고유한 연구’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유실험 실 환경을 구축하여 이화의 모든 교육을 대체불가능한 교육으로 확립하고, 연구중심 대학의 본질이 선도적 지식 생산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자대학으로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대안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세상의 그 어떤 대학도 이화만큼 여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돋는 곳은 없다”며 “여성들의 경험과 역사가 최우선적으로 숙고되는 공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이화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위안과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창립 134주년 기념식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과 ‘이화학술상’ 수여, 음악대학 피아노 트리오(김정은·김봄소리·배일환 교수) 축주 <참 아름다워라> 등 순으로 약 40분에 걸쳐 기념식이 진행됐다.

먼저 이진욱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교사, 석인선 법학과 교수, 김영태 실장이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총 107명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했고,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기독 74) 동창과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전문의 최영아(의학 95) 동창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은 이화 동창 혹은 모교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인권 문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온 최영애 동창과 최영아 동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물리학과 우정원 교수가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화학술상’은 모교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학문 및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에 대하여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우 교수는 비선형 광학 및 극초단 분광 연구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메타물질로 전하이동을 제어해 광전소자의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광학 첨단분야에서 10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온 우수한 연구 실적과 더불어 이공계 전문 분야 여성 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공동 연구를 위해 설립된 이화CNRS 연구소장 및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SRC) 소장을 역임하며 세계 수준의 양자메타물질 연구 수행에 힘써 왔다.

기념식은 교가 제창 및 장윤재 교목실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라이브 방송 마지막에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된 최영애 동창과 최영아 동창, 그리고 ‘이화학술상’을 수상한 우정원 교수 가 이화인들에게 전하는 특별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또한 대외협력처는 이화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학교 발전기금 후원자 소개를 준비하는 등 창립 134주년을 맞은 이화의 역사와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창립 134주년 기념식 행사 영상은 모교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ewhauni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이화인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내 그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널리 세상에 알려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1월 30일(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
| ■ 시상 내용 |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
| ■ 수상 후보 자격 | 국내외 소속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의료·법률·종교·교육·문화 분야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
| ■ 추천인 자격 | 각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연명 날인) |
| ■ 구비 서류 | 후보자 이력서 1통(본 회 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1장 포함)
후보자 업적 및 추천서 1통(본 회 소정양식)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
|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우편 접수는 8월 31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우 03760) |
|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출동창회장 남상택



온 국민 ‘움직임 교육’을 실천하다

이번 호 이화인 모임 탐방은 모교 김숙자(체육 64) 명예교수가 결성한 ‘Folk Dance & Line Dance 연구모임(이하 라인댄스 연구모임)’이다. 체육학과 교수와 동창 선후배가 함께 뜻을 모아 2008년 9월 출범한 이후 12년째 매주 모교 체육홀에 모여 새로운 작품을 익히고 탐구하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라인댄스 연구모임의 리더인 김숙자 교수와 총무 박종현(무용 76) 동창을 만나는 자리, 올림픽 기계체조 국가대표 출신인 김 교수는 꽃꽂한 자세와 허스키한 목소리에 카리스마와 활기찬 힘이 느껴진다.

이화 동창들에게 김숙자 교수는 ‘다함께 몸풀기’ 체조의 장인으로 기억된다. 해마다 ‘동창의 날’ 행사에서 흥을 돋우는 주인공이 김숙자 교수

이기 때문이다. 2부가 시작되며 김 교수가 범상치 않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건강하고 즐거운 몸 풀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 제안하는 순간 장내는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분홍 한복을 입고 긴장한 채 앉아 있던 ‘올해의 이화인’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고, 객석을 가득 채운 동창들과 가족 친지들까지 동참해 일어나며 미소가 번진다. 곧 이어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김숙자 교수의 힘찬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어색함은 사라지고 금세 장내가 함박웃음과 흥겨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체육학과 동창들이 주축이 된 연구모임에서 시작

라인댄스 연구모임은 체육 수업이 점점 실기보다 이론 위주로 변화하자 실기 교육을 더 연구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모교 체육학과 교수이자 1기 졸업생 조성환(체육 49) 교수와 김봉숙(체육 61, 외대 교양학부 체육 담당) 교수, 임미자(체육 62) 명예교수, 방봉세(체육 51)·김정자(체육 56)·서수원(체육 59)·정수자(체육 59) 동창 등이 함께하여 힘을 실어 주었다가, 차츰 체육학과 동창 선후배들과 관심 갖는 타 전공자들이 합류해서 현재 회원이 스물다섯 명 정도가 된다. 연

회원들이 연습실에서 땀 흘리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습은 주 1회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모교 체육과 홀3에서 하고 있다. 새로운 작품의 동작을 배우며 움직임과 리듬을 익히고,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 정서 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다. 현재는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연습과 공연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연습이 있는 날이면 전설적인 체육학과 대선배들이 대거 출동하기 때문에 모교 재학생들과 교직원들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회원들이 일찍부터 홀 앞에 와서 녹음기를 들고 연습 준비를 하면서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후배들도 많다. 운동을 겸해 친목을 나눌 수 있으니 체육학과 동창들에게는 보석과 같은 모임이다. “학교에서 체육 홀을 사용하도록 배려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하는 김숙자 교수는 “체대 동창들이 타 대학이나 중고등 학교 체육 강사로 많이 활동하는데, 연구모임에서 새로운 체조 동작을 배워 각자의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무대 공연으로 기량 뽐내

라인댄스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 주는 공연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회째 ‘동창의 날’ 무대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중 2016년 창립 13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는다. 박종현 동창은 “특별 공연에는 해외 거주 동창들까지 참석했어요. 모든 회원이 함께 호흡 맞춰 공연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고 떠올린다.

요즘 부상하고 있는 라인댄스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추는 춤을 말한다. 10여 년

전 미국에서부터 도입되어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안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파트너가 따로 필요 없는데다 특별한 복장이 필요하지도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춤을 추며, 동일한 음악에 동일한 동작,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춤을 춘다. 무용 전공자가 무대에 올리는 완성도 높고 어려운 동작인가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라인댄스 연구모임에서 추구하는 것은 비전공인인 일반인들이 따라 하기 좋은 간단한 동작 위주로 실시하여 대중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체조 제정위원장으로 활약한 김숙자 교수

라인댄스 연구모임의 중심인 김숙자 교수는 국내 체육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모교 입학 당시에 1960년 로마 올림픽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지만,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올림픽 참여가 무산되었다. 합숙 훈련으로 대학 입학식에도 참석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안타깝다는 김 교수는 이후 체육 지도자로 진로를 변경하여 리듬체조 세계 심판, IOC여성체육위원회,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부단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고문으로서 여성 체육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김 교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체조’ 제정 위원장으로서 체조 동작을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당시 제정위원들 중 여성은 김 교수 한 사람뿐이었다. 한창 보급되었을 무렵 학교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방송으로 구령에 맞춰 국민체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동창들이 많을 것이다.

2000년대에 ‘새천년 국민체조’가 보급되긴 했

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원조 ‘국민체조’가 더 친숙하다. 요즘엔 국민체조앱을 설치하면 동영상을 보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 김 교수가 합창제의 마지막 순서로 수년째 무대에 올라 지도하는 ‘다함께 몸풀기’ 체조는 국민체조에 바탕을 두고 라인댄스의 스텝과 리듬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이 단순하여 따라 하기 쉽고 전신 근육을 사용해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움직여 운동 효과도 만점이라 참석자들의 긴장과 피로를 단번에 풀어준다. 김 교수는 “무대 위에서 따라 하는 관중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모교 대강당에서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학교를 빛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왔다는 보람이 있습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낸다.

2010년 이화 창립 기념식 축하 공연을 마치고



모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각종 공연해

김숙자 교수는 은퇴 후에도 국내외 각종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체육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모교 체육학과와 라인댄스 연구모임이 그 길을 함께했음은 물론이다. 라인댄스 연구모임에서는 여성 체육지도자를 양성, 지역사회 단체에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하도록 연결한다. 이런 인연으로 수년째(내수동) 교회 시니어 학교에서 라인댄스를 지도하고 있다는 박종현 동창은 “시니어들은 올드 팝송을 틀고 동작하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스텝을 밟으며 90도씩 방향을 바꾸는데, 사방을 돌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익히게 되어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시니어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모교에서 부르면 국내외 어디든지 달려가 움직임 교육에 앞장섰다. “이배용 전 모교 총장님과 미국 LA 동창회 행사에 동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몸풀기 체조를 지도했더니 동창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도 다 함께 따라하게 됐어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주어야 동창들을 끌어낼 수 있죠. 옆 사람하고도 금세 친해지거든요. 움직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사리 수련관 등 학교 기관은 물론이고, 외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체육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무용을 공연한 것도 인상적으로 떠올린다. 개인적으로는 딸과 함께 수년간 나환자 정착 촌인 ‘성 라자로 마을’에서의 사회체육 봉사도 기억에 남는다. 노인학교와 글로벌어린이재단에서 아동들에게 공부방을 지어 주고 공연도 했다. 이렇게 김 교수는 40여 년간 체육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제52회 용신봉사상’을, 지난 1월

엔 서울 YWCA 총회에서 ‘50년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움직이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코로나19 여파가 진정되면 라인댄스 연구모임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큰 바람이라는 김숙자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이화 동창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부탁드리자 ‘움직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노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김 교수가 연배에 비해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비결이 ‘음악을 틀어 놓고 움직이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란다. “머리에는 지혜,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열정을 가지고, 양팔로는 나누고 혼신하고, 다리는 행동하라”는 것이다.

“시니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대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는데, 오히려 학생들과 젊은이에게 움직임 교육이 절실합니다. 펄펄 끊는 열기를 발산할 수가 없으니 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이태원 클럽을 찾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움직임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 안타깝습니다. 지덕체(智德體), 즉 건강한 몸이

이화 창립 127주년 축하 공연



올해의 이화인과 함께한 김숙자 명예교수(맨 앞)의 몽풀기 체조

있어야 공부도 하고 건전한 생각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라인댄스는 음악과 더불어 하나 마음의 순화작용도 있어요. 대학 진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대 여성 체육의 역사는 모교와 함께 시작됐다. 1886년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6년이 지난 1893년 조세핀 페인(J.O.Paine)이 제3대 학당장으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체조를 시작하면서 정식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913년에는 최초로 농구와 정구를 시작하여 방관자가 아닌 실제 뛰면서 활동하고 경기에 참여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화학당이 처음이었다. 김활란 전 총장 등이 주도해 최초의 여성 체육단체인 YWCA가 1922년 설립되었고, 1923년에는 교내 YWCA 체육부를 두어 농구, 정구, 야구, 육상, 수영, 스케이트, 등산 등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근대 여성 체육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 이화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 ‘움직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김숙자 교수와 ‘라인댄스 연구모임’의 활동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서로 돋고 중보하며

인도네시아의 개략적인 현재 상황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도시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은 열악하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정확한 통계가 미비하며,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은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마을 단위로 자체 봉쇄하여 외지인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휴교령과 외출 자체령은 연장 시행되고 있는데, 6월 중에는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바(Jawa) 중부 지역

저희가 사는 자바 중부 지역은 관공서 휴무 및 대부분의 상점들이 철시된 상태이며, 캠퍼스 사 역하는 S사범대학도 대학생과 교수진의 캠퍼스 출입이 폐쇄되어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하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제와 발표 및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컴퓨터 화면을 자주 대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가 있

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하는 8월 하순에는 청년 대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사랑과 열정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리만탄(Kalimantan) 서부 지역

사역하는 전도자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지만 서로 돋고 중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기가 없고 전파 수신도 어려운 산지 마을이라 한 가정 혹은 인근 두세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 특강을 맡은 신학교 세미나도 8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쌀 등을 구입해 지난달 하순 신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였습니다.

추수의 집 기숙사

산 중턱에 있는 추수의 집 기도원 내에는 남녀 기숙사가 있는데, 청소년 학생들 32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교령과 이동 제한령에 따라서 고향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

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원장과 더불어 청소년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격려하며, 이러한 때 오히려 조석으로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여 추수의 일꾼 및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미래의 삶의 비전과 제자 양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배 모임

주님의 정원에서 모이는 장애인 센터 훈련 모임과 기독 장애인 예배 모임은 정부 시책에 의해 중단한 상태입니다. 심신이 연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매일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 가정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및 학생들을 격려하며 설탕과 식용유, 면류 등의 각종 생필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동 제한과 외출 자제로 마을별 거점을 통하여 가정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10여 가정들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난한 가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후원 동역자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특별 헌금이 학생들 장학금과 가정들 생필품을 나누



기·도·해·주·세·요

1. 캠퍼스 사역으로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전 하며 깨자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처부 칼리만탄 복음전도교회, 주그리스도교회, 청년 예배모임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3. 추수의 집 기도원의 기숙사에 있는 32명 청소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주님의 정원 장애인 센터에서 섬기는 장애인 가정의 건강이 잘 유지되게 하소서.
5. 연로하신 부모님께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두 자녀 지훈(29세), 지민(27세)의 장래를 주께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는 재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송사랑(융합보건 87)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의과대학

회장 __ 심 현(의학 80)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으기 동참

4월 8일(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882만 원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전달하였다. 심현 회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열악한 상황에 불철주야 의료 봉사를 펼치는 많은 의료진들을 보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승화시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로서 의료진에게 힘을 보태고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을 구하자”며 최근 코로나19 의료 봉사 지원과 성금 모금에 동창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성금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을 통해 국가 재난으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에 전달되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역용품을 위해 사용된다. 심현 회장은 “이화인의 섬김과 나눔 정신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 숭고한 뜻이 전해져 왔다.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창들과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코로나19로 방역 최전선에서 치료와 확산 방지에 전념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의대 동창회는 2011년 4월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출범된 ‘이화의료봉사회’를 통해 현재까지 총 19곳의 청소년 쉼터와 협력을 맺고 의료적 혜택이 절실한 쉼터 청소년들에게 이화의대 동창 병원에서 무료 진료와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 방호물품 지원 등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의 도움과 GSK후원으로 ‘자궁경부암예방접종’ 등 청소년의 의료 혜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여성 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성금을 전달한 의과대학 동창회

약학대학

회장 __ 김용재(약학 82)

약대 동창회 선교부 설립 34주년 감사예배

5월 12일(화) 약대 A동 400호에서 약대 동창회

선교부 설립 34주년 감사예배가 있었다. 이번 예배는 동창회 임원단이 사회와 대표기도, 특송 등의 순서를 맡았고, 예수뿐인 교회의 조동천 목사가 사도행전 11장 22절~26절의 말씀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느라 열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떨어져 앉기 등을 실천하였다. 예배 후에는 2020년도 선교 장학생 구예원·안예은 재학생에게 각 3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약대 선교부에서는 매월 선교사 일곱 명에게 선교비를



동창회 선교부 설립 34주년 감사예배를 주관한 약학대학 동창회

후원하고, 매 학기 두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과(학부) 순서로 계재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_ 송동수(74)

대구광역시의사협회에 기부

국어국문학과 동창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땀 흘리고 있는 대구광역시의사협회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지연(75)

새 임원진 꾸리고 신·구 임원진 모임 가져

5월 22일(금) 서울 도곡동의 한 중식당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신·구 임원진의 모임이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예정된 모임을 갖지 못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15기 회장 이지연 동창의 주선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 참석한 15기 새로운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민용자(67)·남재은(68) 동창, 감사 이봉무(72)·김영호(73) 동창, 회장 이지연 동창, 부회장 황은신(75)·손희정(87)·이정랑(92) 동창이다.

이날 고문인 남재은 동창은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진을 위해 후원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신·구 임원진 모임을 가진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또한 2020년 올해의 이화인으로는 24기 기간사로서 그동안 봉사해 온 박지나(90) 동창이 동기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되었다.

화 동창들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인 자리였다.

물리학과

회장__신소영(88)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2020년 총회

5월 26일(화) 2시에 물리학과 동창회 밴드에서 2020년 물리학과 총회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였다. 많은 동창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던 예년과는 달리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서울 교대역에 있는 일마레에서 라이브로 방송된 이번 총회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 방송은 임원진들의 새로운 시도와 동창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총회에서는 최은영(87) 전 회장의 이임식과 신소영 차기 회장의 취임식이 간단히 진행되었다. 올해의 이화인에 30기 탁정미(90) 동창이 선정되었고, 최혜원(17학번)·김소연(18학번) 재학생에게 물리학과 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졸업 30주년·50주년 맞은 동창들에게 심심한 축하를 보내며 다음 동창회 모임까지 모두 건강

사회학과

회장__오숙영(77)

동창 교수 정년퇴임 축하연

1월 8일(수) 사회학과 교수 조성남(77) 동창의 정년퇴임 축하연을 가졌다. 이 뜻깊은 사회학과의 첫 동창 교수 퇴임 축하 모임에 59학번에서 84학번까지 선후배 36명이 참석하였고, 은사인 이동원 교수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동창들의 진심어린 축하, 축사, 덕담 등으로 시종 웃음이 넘쳤고, 훈훈한 감사와 감동 속에서 이



첫 동창 교수의 정년퇴임 축하 모임에 참석한 사회학과 동창들



라이브 방송으로 2020년 총회를 진행한 물리학과 동창회

하기를 기도하였다.

종교음악과

회장__오지영(88)

가상의 공간에서 함께 부르는 합창

5월 12일(화) 영상으로 진행된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에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이 각자의 위치에서 녹음하고 녹화하여 Virtual Choir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을 특송으로 봉헌하였다.



영상으로 진행된 감사찬양예배에서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이 특송을 봉헌하고 있다

서양화과

회장__채정수(83)

동창 그룹전 '가치전'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전시 일정이 취소된 가운데 동창 그룹전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85학번 동창 여섯 명이 가치 있게 아름다운 작업을 함께 하며 아름다운 삶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가치전'은 5월 27일(수)부터 6월 13일(토)까지 갤러리 바움에서 전시되었다. 이번이 4회째 전시이다.

2020년 5월 29일(금) 동창의 날 행사에 86학번



갤러리 바움에서 기획 전시된 85학번 동창들의 동창전 '가치전'

조강신(90)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참석하였다.

조소과

회장__박신정(85)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전시 진행

조소과 동창회는 4월부터 홈페이지(www.esaarts.com)를 통해서 ESAarts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강릉시 하슬라아트월드에서 이화조각회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한편 박효정(90)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무용학과

회장__한명옥(79)

무용과 동창회장 선임

무용과 동창회는 지난 3월 제12대 무용과 동창회장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명옥 동창을 선임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한명옥 동창은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무용원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전임 회장단에서 수석 부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남궁봉일(체육 81)

동창 유학생들에게 COVID-19 장학금 기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남가주 지회의 임원회
의는 영상(Zoom Meeting)으로 하고 있으며, 2월의
서양 약초 강의 이후 3월부터의 모든 강의, 행사
및 모임은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남가
주 지회 동창들은 꾸준히 동창회비와 동창회 후원
금 및 장학금을 보내 주어 동창회 사랑을 보여 주
고 있다.

특히 동창 두 분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
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창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COVID-19 장학금을 기부해 주었다. 박현
덕(영문 59) 동창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1만 달러를 기
부하였고, 배순자(무용 68입, Jennifer Lee 장학재
단 공동 설립자) 동창은 5,000달러의 장학금을 기

부하였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 지회에서 접수
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은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
장들의 단체 카톡과 동창들의 이메일로 배포하였
다. 신청 마감일은 6월 5일(금)이며, 신청서를 제출
한 동창 유학생과 추천인의 전화 인터뷰를 토대로
남가주 지회 임원회의를 거쳐 COVID-19으로 인하
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중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는 유학생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장학금
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가주 지회 명부에 있는 약 1,400명의 동
창 이메일로 모교 창립 134주년 기념식과 동창의
날 행사를 전송하였고, 남가주 지회의 이화인들은
영상을 통하여 모교 창립 축하 기념식과 동창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디트로이트(미시건) 지회

회장 __ 신인옥(컴공 85)

마스크를 제작하여 기증

미시건 지회의 동창들은 COVID-19 하에 병원에
서 필요한 마스크를 제작하여 기증하는 Hospital
MaskCoverTaskForceTeam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차승순(기악 70)·오미령(식영 77)·박정란(심리 85)
이사와 신인옥 회장이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마스
크를 재봉질하여 총 500개의 마스크를 만들었고,



박현덕 동창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고 있다

신 회장이 병원에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익명을 요구한 이사 한 명이 300달러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미시건 지회가 개최하기로 한 202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COVID-19로 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는 추후 상황을 더 지켜 보아야하겠으나, 테마를 ‘Rise & Shine(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으로 정하고 포스터를 여러 디자인 가운데 선정 중이며, 웹페이지 제작자를 알아보는 등 임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미시건 지회 동창들이 직접 만들어서 기증한 마스크들

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아름다운 송년의 밤을 보냈다.

2020년 2월 15일(토)에는 선배 이사들의 아이디어에서 기획된 ‘2020 작은 음악회’가 개최돼 가슴 따뜻한 음악의 밤을 보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이규임(성악 14) 동창과 클라리넷 전공 송명숙(관현 89) 동창, 거문고 전공 김지은(한음 13) 동창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 보였고 참석한 동창들 및 이사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꽃이 가득 했다. 2020 작은 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총 2만 달리이며 모인 기금은 ‘MEGA 2020’ 및 장학기금 마련에 사용된다.

3월 16일(월)에는 북텍사스 지회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MEGA 2020’ 진행 상황 보고 및 근황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신동진 회장은 “이사들의 전적인 지지와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으며 이사들 역시 “앞으로 북텍사스 지회의 발전과 더 나아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북텍사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0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장 회의와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MEGA 2020 영상 총회(Virtual Annual Meeting)’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지회장 회의를 통하여 최종

북텍사스 지회

회장 __ 신동진(섬예 85)

작은 음악회를 통해 ‘MEGA 2020’ 및 장학기금 마련

북텍사스 지회는 매년 메이데이 행사를 포함해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 지역사회를 섬기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2월 7일(토)에는 북텍사스 지회 송년회와 바자회를 함께 개최해 티켓 및 바자회 물품 판매, 그리고 후원금으로 총 7,659.81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 기금은 장학기금 마련 및 MEGA 2020 준비에 사용된다.

이날 송년회로 한 자리에 모인 북텍사스 지회 이화 동창들은 옛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임원들이 직접 마련한 저녁 만찬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누었다. 또한 공연과 지회 활동 보고 등 서로 격려



송년회에 참석한 북텍사스 지회 동창들

확정할 예정이며, 영상 총회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__박진경(교공 87)

온라인상으로 동창들과 교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2020년 상반기엔 공식적인 동창회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자국 전체 자가격리를 엄격히 시행, 외부인과의 접촉 및 외부 출입도 대부분 허락되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로움을 호소하는 동창들이 많아져,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상(Ewha Zoom Social)에서 수차례 진행하여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고, 좋은 정보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특히 Ewha Zoom Social 시간에는 지금은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으나 싱가포르 동창회를 통하여 인연을 맺은 동창들이 다수 참여하여 여러 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현황도 나누어 보았다. 또한 싱가포르 지회에서는 생활고에 처한 재학생들을 돋고자 모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 운동'에 동참, 소정의 모금액을 5월 초 모교에 전달하였다. 생활고에 처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싱가포르 지회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명을 선출, 금년 또는 내년 여름에 한국 모교의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및 모교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하계대학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4주간의 학비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COVID-19의 여파로 예정되었던 3월 특강과 5월 봄 피크닉이 취소되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창회는 지속적인 동창 간의 교류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다. 연로하거나 병환 중 또는 도움이 필요한 동창들을 위해 발족한 Sunshine Committee는 새로운 Chair로 선출된 최숙자(문정 69) 동창을 필두로 안부 전화, 카드 보내기, 음식 배달 등을 통해 동창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동창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한인 가정들의 긴급 식비 지원을 위한 《미주 한국일보》 '사랑 나눔 캠페인'에 80세가 넘으신 선배님들부터 젊은 후배들까지 마음을 모아 주신 성금과 동창회 기금을 합하여 5,000달리를 전달하였으며, 워싱턴DC에 소재한 여성 쉘터 및 재활, 교육 단체인 Calvary Women's Services에 한국 마스크 150장을 기부하였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글 교육 공백 극

워싱턴DC 지회

회장__서혜경(정외 90)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다양한 기부 활동

워싱턴DC 지회는 이화 하계대학 장학생으로 두



COVID-19 직전에 있었던 2020년 워싱턴DC 지회 이사회

복을 위해 지역 방송과 신문에서 개최하는 ‘특별 기회 코로나 관련 백일장’에 500달러를 후원하였다.

워싱턴DC 지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동창 및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 간격을 풍성하게 채웠다.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예배 모임을 가진 토론토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_ 박현애(사회과교육 81)

화상 회의로 함께한 영상 예배 모임

사상 초유의 COVID-19 사태로 모든 모임이 규제를 받아서 그리운 동창 선후배들을 만나지 못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가는 이때 그리운 마음을 영상으로나마 나누며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Zoom Meeting이라는 화상 회의를 통한 횃불회 영상 예배 모임을 가졌다. 5월 28일(목)에 이루어진 영상 예배 모임을 통해 총 36명의 동창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참여하지 못한 동창들에게는 이메일로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 주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온세상이 떨고 있는 요즘 조혜령(성악 96) 동창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고백의 특송에 위로를 받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김성란(기독 95) 목사의 간증설교를 들으면서, 동창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사랑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생명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컴퓨터나 태블릿 앞에서 어깨가 빠근해진 동창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쭉 뻗어 스트레칭하도록 브레이크 타임을 인도해 준 장형숙(통계 97) 동창의 프로그램으로 한 시간 반 온라인 예배와 교제 시간이 피곤한 줄 모르고 지나갔다. 아리따운 이상아(한음 13) 동창의 판소리를 들으며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가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신선한 판소리 창법이 참 인상적이라 이 기회에 판소리 배우고 싶어진 동창들도 있을 것 같다.

윤미경(사복 93) 동창이 알려준 ‘사랑합니다’ 손신호로 모든 동창들과 사랑을 전하고 화상 회의 스크린을 끄는 마음이 한가득 풍성하면서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아쉬움을 남겼다. 영상이 아닌, 맛있는 냄새 솔솔 풍기는 실물 이화 비빔밥을 앞에 두고 선후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홍콩 지회

회장 __ 최명성(교공 76)

모교의 재학생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금

홍콩 지회의 동창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을 돋는 모교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 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짧은 기간 안에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기부금을 함께 모아

서 모교에 후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모임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이화 홍콩 채팅방을 활용하여 개인별 약정 의사와 온라인으로 기부액을 취합하는 등 효율적이고 단합된 모습으로 모금 운동을 하였다.

5월 14일(목)에는 홍콩 섬의 Deep Water Bay에 위치한 Hong Kong Country Club에서 11명의 동창들이 참여하는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홍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에 가진 이번 모임은 방해자(교육 66) 초대 홍콩 지회장의 점심 초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홍콩 지회의 모교 후원을 통해 선후배 간의 우정과 결속을 다시 한 번 다졌다.

홍콩 지회에서는 앞으로도 보람된 일에 함께하는 이화 홍콩 동창들이 되기로 다짐했다.



5월 점심 모임에 참석한 홍콩 지회 동창들

휴스턴 지회

회장 __ 구희경(사회과교육 86)

온라인으로 장학금 수여식 중계

휴스턴 지회는 3월 초 Museum of Fine Arts Houston이 주최하는 Azalea Trail 행사에 다녀왔다. 올해는 박물관의 일부인 Rienzi라는 저택을 방

문했다. Rienzi는 1952년 휴스턴의 건축가 John Staub가 디자인한 저택으로 Azalea 꽃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정원뿐 아니라 유럽의 Decorative Arts, Porcelain, 그림, 가구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4월에는 EWHA WALK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휴스턴 역시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서 연기되었다.

EWHA WALK는 동창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걷고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로컬 학생들과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할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일단 연기되었으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개최하고자 한다.

휴스턴 지회에서는 매년 5월 두 명의 크리스천 여학생을 로컬 장학생으로 선발해 왔다. 올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창들이 힘을 모아주어 장학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었다. 지원 서류 심사는 온라인으로,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들과 그 부모님을 모시고 동창들과 함께 Zoom Meeting으로 진행했다.

휴스턴 지회의 모든 봉사 활동들은 동창들의 응원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사랑과 격려를 넘치게 주는 휴스턴 지회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



Rienzi 저택을 방문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이정주(서양 72) 동창

4월 16일(목)부터 6월 17일(수)까지 광주광역시 루이스 갤러리에서 개관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정주 동창

김보희(동양 74) 동창

5월 15일(금)부터 7월 12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김보희 동창

배혜화(불문 77) 동창

배혜화 동창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6월 2일(화) 개막해, 모교 ECC 삼성홀과 필름포럼에서 국내외 영화 16편을 상영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별해 소개하는 영화제이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이음’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상영했다. 코로나19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영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기획했다.



배혜화 동창

김정희(사학 80) 동창

미술사를 전공한 김정희 동창이 3월 원광대학교 인문대학장에 취임하였다.



김정희 동창

박지훈(사학 80) 동창

동양사를 전공한 박지훈 동창이 3월 경기대학교 인문대학장에 취임하였다.



박지훈 동창

정성숙(무용 80)·태혜신(무용 93) 동창

5월 8일(금) 문화재청이 구성한 제3대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전통예능부문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단체이다. 정성숙 동창은 현재 전통공연진흥재단 이사장이자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태혜신 동창은 태혜신 카르마프리 무용단 대표이다.



정성숙 동창

민무숙(영문 81) 동창

4월 28일(화) 제3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민무숙 동창이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민무숙 동창은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2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민무숙 동창

김희숙(섬예 83) 동창

2월 4일(화)부터 3월 29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해

화동 연우재에서, 4월 15일(수)부터 26일(일)까지 인사동 통인화랑 5층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희숙 동창은 한국의 색동과 빛에 대한 깊은 연구로 기학적인 패턴의 연속적인 움직임과 색이 지닌 수많은 스펙트럼을 한 화면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적인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김희숙 동창

이지호(서양 84) 동창

4월 6일(월) 지역 미술문화 진흥을 이끌 전남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으로 이지호 동창이 임명됐다. 이 동창은 대전시립미술관장을 비롯 대전이응

노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고, 광주비엔날레 학술위원, 연세대 대학원 겸임 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최승애 동창

최승애(조소 85) 동창

5월 15일(금)부터 30일(토)까지 서울 금보성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김애란 동창

김애란(서양 86) 동창

3월 15일(일)부터 4월 13일(월)까지 복합문화공간 Brewda 광화문 제1 전시장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화기독미술인회 제6회 '로고스 100호전'

이화기독미술인회(회장 신미선(서양 85))가 주최한 제6회 '로고스100호전'이 6월 2일(화)부터 15일(월)까지 서울 일원동 소재 밀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2015년 창립 전을 시작으로 성경에서 발췌한 주제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의 전시 주제는 '로고스'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묵상한 것이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미술이라는 달란트를 부여받은 기독 작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청년의 때를 이화 캠퍼스에서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이화의 '처음'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의 이화의 존재 목적을 알리고자 한다. 미션스쿨인 이화에서 정작 기독 예술의 역할이 흐미해졌다. 세속 문화와 구분 짓기 위해 쌓은 경계선이 우리만의 리그로 협소해져 버린 기독 예술의 영역을 더욱 활발히 확대시키고 올바른 시각예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에 기독 문화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라 여기며 앞으로의 전시를 진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미술대학 1회 졸업생인 신금례(서양 49) 동창을 포함한 평면회화 작가 동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명의 작가 동창들이 참여하여, 100호 작품 20점과 소품 40여 점, 총 60여 점을 전시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으로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는 전시였음이 관람객들의 후기로 확인되었다.



남수정(무용 87) 동창

용인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남수정 동창이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2년 2월까지이다.



남수정 동창

이선영(국문 87) 동창

시인 이선영 동창이 제2회 김종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시집『60조각의 비가』이다. 김종철문학상은 ‘못의 사제’로 불리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 시대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한 고(故) 김종철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시 문학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7월 2일(목)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선영 동창

하은희(의학 87) 동창

의화의료원 연구진흥단장 하은희 동창이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비 수주 및 연구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됐다. 모교는 교육과 함께 대학의 핵심 역할인 연구 분야 진작을 위해 한 해 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교원 및 우수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을 올린 교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하은희 동창은 국내 최초로 산부인과와 연계한 출생코호트(특정의 기간에 출생한 집단) 구축을 시행해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은희 동창

김진희(조소 88) 동창

4월 29일(수)부터 5월 10일(일)까지 새로 오픈한 아트뮤지엄 옹기그



김진희 동창

룹 아트센터에서 개관 기념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윤선흥(동양 88) 동창

5월 12일(화)부터 30일(토)까지 갤러리두에서 ‘식물원’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5월에 어울리는 전시로 기획된 이 전시의 특징은 ‘순수함’이다. 편안한 색감과 안정된 붓 터치 속에 담긴 순수함과 친근감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추억을 회상할 시간을 안겨 준 전시였다.



윤선흥 동창

이고은(무용 88)·김민정(무용 89)·송보화(무용 93) 동창

4월 1일(수) 대구시 의료원 돋기에 1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상미(섬예 88) 동창

5월 12일(화)부터 28(목)까지 아뜰리에 컬처팜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아트 바자전인 ‘Together’ 전을 기획하였다. 이 ‘Together’ 전은 아트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이며, 중증 장애인들의 미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장과 정신적 자립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가평 꽃동네 희망의집에 거주하는 김재호·정철·홍성기 작가와 중구 자립공동홈에서 거주하는 이주연·김태성 작가가 함께하였으며, 조원미(장미 88) 동창이 작품 참여와 함께 전시 장소를 제공하고, 이재숙(도예 86) 동창이 작품으로 함께하는 등 조형예술 동창들의 많은 도움으로 더 내실 있는 전시가 되었다.



이상미 동창

임수영(관현 88) 동창

임수영 동창이 남편 김덕영 감독과 함께 제작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프로듀싱하고 제작·배급하였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6월 25일(목) CGV아트하우스에서 개봉하였으며, 6월 18일(목)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국제영화제 9개에 초청되었다.

김정연(조소 89) 동창

3월 12일(목)부터 31일(화)까지 뉴욕의 BOCCARA ART Brooklyn Gallery에서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김정연 동창

박미향(생명 89) 동창

4월 13일(월)부터 4주간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붓의 춤으로 고전을 담다’라는 부제로 개인전을 열고 서예와 문인화 작품을 전시하였다. 박미향 동창은 춤을 추는 듯한 붓의 놀림으로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인과 교감하고자 하였다. 박동창은 현재 서예, 문인화가로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다붓다붓 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박미향 동창

한여옥(서양 89) 동창

5월 5일(화)부터 31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창의문의 뜰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시선이 머무는 공간’ 개인전을 열었다.



한여옥 동창

여윤경(가관 91) 동창

3월 18일(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삼성전기 주주총회에서 여윤경 동창이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되었다. 여동창은 모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윤경 동창

이돈아(교공 91) 동창

3월 24일(화)부터 한 달간 서울 코엑스 외벽에서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상영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술로서 감동과 위로를 주자는 의미로 기획된 행사이다. 이 전시는 ‘Enjoy South Korea’s Splendid Folk Art From Home Amid COVID-19 Outbreak’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에 보도되었다. 이돈아 동창은 민화의 길상적 도상과 개인적인 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이돈아 동창

이소영(조소 91) 동창

4월 29일(수)부터 6월 10일(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히든 앤 갤러리 (HIDDEN M GALLERY)에서 ‘경로의 단서들 (Clues on Paths)’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이소영 동창은 유년시절 기억 속에 있는 첫 길 찾기와 이후 여러 번의 이사로 낯선 도시 구조 안에 고유한 경로를 생성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시각적인 공간 인식과 더불어 청각적인 사유를 전하고자 했다.



이소영 동창

이혜정(동양 91) 동창

5월 6일(수)부터 16일(토)까지 서울 종로구 을곡로 장은선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빛과 공간’ 개인전을 가졌다. 이혜정 동창의 회화적인 공간 개념은 에고에서 출발한다. 이 동창이 생각하는 조형 공간은 자연이나 지구를 넘어 무한공간으로서의 우주를 지향한다. 조형미를 전제로 하는 이성과 감



이혜정 동창

정 그리고 의지를 주재하는 에고를 통해 조형적인 상상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기애를 수반하는 그의 에고는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사유가 깃들 이는 조형 공간을 경영하는 일이라고 한다.

조설희(문정 91) 동창

3월 국립중앙도서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조설희 동창은 1992년 국립중앙도서관 근무를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교류홍보팀을 거쳐 디지털기획과에서 원문DB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하였다. 현재 국제교류홍보팀장을 맡아 해외의 한국학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을 고민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정(문정 92) 동창

3월 국립중앙도서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김수정 동창은 1993년 국립중앙도서관 근무를 시작으로 2012년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준비팀으로 세종도서관 직제 및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이후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장으로 장애인의 정보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승미(교육 95) 동창

6월 15일(월) 홍승미 동창이 제41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에 취임했다. 홍 동창은 4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병무청 대변인, 대구·경북청장, 부산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등을 지낸 병무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홍 신임청



김수정 동창



홍승미 동창

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주문했다.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 디렉터인 송혜영 동창이 갑작스러운 COVID-19로 인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제2회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을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어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물론 음악계로부터 큰 주목과 갈채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참가한 각 참가자의 결승 연주와 시상식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중계되었다.



송혜영 동창

유성희(행정 98) 동창

서울동부지법 판사 유성희 동창이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신규위원에 위촉됐다. 유성희 동창은 위원으로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유 동창은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순임(조소 02) 동창

2월 17일(월)부터 3월 31일(화) 까지 일본 규슈예문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월 18일(수)부터 27일(금)까지 'Sea Rainbow_Plastic-Scape'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김순임 동창

남윤수(설예 02) 동창

3월 6일(금) 남윤수 동창의 'Poetic Bubbles' 개인전

리셉션인, 3월 14일(토)에는 'New Stars' 그룹전 리셉션인 Lewisville Art Gallery & Artisan Shop에서 열렸다. 리셉션에는 북텍사스 지회 임원들 및 동창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남윤수 동창

피계림(행정 02) 동창

피계림 동창이 부산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여성이 지방사무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 동창은 공정위 본부 소비자정책국, 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을 두루 거치고, 2018년 말 유통정책관실 총괄 서기관을 역임하였다.



피계림 동창

길재영(동양 06) 동창

길재영 동창이 갤러리 도스에서 3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 '연합되어진 물질의 빛' 전을 가졌다. 이 전시는 자연의 사물, 공간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관찰된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경험되는 오성(Verstand)의 빛 속성을 통하여 현 물질세계의 질서를 시각화하고자 한 전시이다.



길재영 동창

서수진(국문 06) 동창

서수진 동창이 장편소설 『코리안 티처』로 3,000만 원 고료의 제25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코리안 티처』는 대학 한국어학당에 근무하는 네 명의 여성 강사를 통해 고학력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 동창은 2006년 제



서수진 동창

1회 이화글빛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김지예(법학 07) 동창

변호사 김지예 동창이 5월 6일(수) 경기도 신임 공정경제과장에 임명되었다. 김 동창은 법무법인 기풍, 법무법인 태율, 로 тек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했으며, 소비자 집단 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 등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김 동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동창

김찬미(동양 08) 동창

김찬미 동창이 '비커밍 스튜디오 미술치료 연구소'를 오픈하였다.



김찬미 동창

박선양(동양 10) 동창

박선양 동창이 갤러리 도스에서 4월 8일(수)부터 14일(화)에 '피 어난 시간의 퇴적' 전을 가졌다. 이 전시는 규칙적으로 흩어진 꽃과 풀들 위에 누군가의 기억이 담겨 있고, 이러한 기억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감정, 느낌, 동기유발 등의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전시이다.



박선양 동창

김소정(동양 14) 동창

김소정 동창이 5월 9일(토)부터 30일(토)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역 사내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갤러리에서 '가는 응시와 단단한 선' 전시를 가졌다. 가는 응시(Moving Gaze), 'Gaze'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김 동창은 응시로 수집된 매체를 기록하기 위해 단단한 선(붉은 선)을 선택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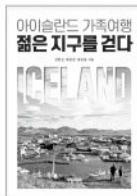
동창이 펴낸 책



아이슬란드 가족여행, 젊은 지구를 걷다

김현실(국문 77)

김현실·류문찬·류승룡 지음/한솜미디어
김현실 동창이 남편 류문찬, 아들 류
승룡 씨와 함께 가족 여행기를 펴냈
다. 김 동창은 여정에 맞춰 서사
적 스토리를 기록했고, 남편 류 씨
는 장소와 거리에 따른 객관적 여
행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
인 여행 정보는 하루 여행이 끝나
는 지점마다 남편이 상세하게 요
약 정리하여 장 말미에 수록했으며,
아들의 다소 다른 관점과 사진도 중
간중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
다. 아이슬란드 자유 여행을 꿈꾸
는 이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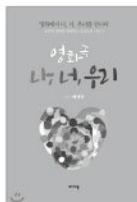


영화 속 나, 너, 우리

배혜화(불문 77)

배혜화 지음/초이스북

한국알트루사의 심리상담 계간지
『니』의 '영화 속의 니' 코너에 쓴 글
을 묶은 책이다. 국내외 영화 40편
을 소개하는 곳곳에서 문학과 영화
를 전공하고 삶에 대한 치열하고 폭
넓은 성찰과 연륜이 깊은 배혜화 동
창만의 예리한 관찰력과 상상력, 영
화사적 의의와 제작에 얹힌 이야기
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배 동창의
독특한 감상 포인트는 독자들에게
'영화의 재발견'이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배 동창은 현재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집행위원장,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학과 명예교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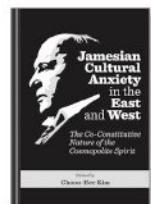


Jamesian Cultural Anxiety in the East and West

김춘희(영문 78)

김춘희 역음/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콘퍼런스
기획에 대한 최상의 국제적 평가를
받은 제7차 Henry James 국제학술
대회의 후속 작업으로 「Jamesian
Cultural Anxiety in the East and
West」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8명
의 학자들은 헨리 제임스 문학의 문
화적 속성에 대한 기존의 서구 비평
적 조망을 넘어 동아시아적 맥락에
서의 특수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 코스모폴리탄 관점을 각각의 주
제를 통해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궁
극적으로 제임스 특유의 코스모폴리
탄 개념을 철저한 '상호구성성'에
기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현의 도자 이야기

이윤경(도예 79)

이윤경 엮음 / 띠음

한국 현대 도예 1세대 작가인 조정
현 교수의 글과 작품을 한데 모았다.
이윤경 동창은 스승 조정현 교수의
작품과 각종 매체에 기고한 글, 인터
뷰 기사 등을 모아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예가 조정현 교수의
행적을 10년 단위로 정리하였다. 활
발했던 국내외 활동, 도자에 대한 조
정현 교수의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
히 느껴지는 글 그리고 높은 식견이
느껴지는 인터뷰까지 무엇 하나 빠
트릴 수 없는 소중한 자취이다.



릴리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김우남(김희숙·정외 81)

김우남 지음 / 문예출판사

네일아티스트가 성매매 집창촌 레드 하우스로 출장네일을 가서 만난 릴리를 11년 후에 다시 만나는 열흘 동안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음지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는 평론과 함께, '일단 재미있다', '기슴이 아리다', '먹먹하다', '나를 반성하게 된다(여성 독자)' 등의 후기가 압도적이다. 김우남 동창은 2001년 『실천문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세 권의 소설집 『엘리베이터 탄는 여자』, 『굿바이 굿바이』, 『빼꾸기 날리다』가 한국문화예술위 및 경기문화재단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직지소설문학상, 노아중편문학상, 이화문학푸른상을 받았다.



한국 선거 예측가능한가

조기숙(정외 82)

조기숙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오랜 세월 선거 연구에 천착

해 온 조기숙 동창이 보다 정확한 선거 예측을 위해 다듬어 온 선거예측 모형과 그것의 적용 결과를 집대성 한 책이다. 또한 선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뿐 아니라 정치 논평 가로서 활동해 온 조 동창의 날카롭고 명쾌한 선거 분석과 예측 또한 담고 있다. 조기숙 동창은 2005~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모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최초의 공공외교 연구기관인 공공외교센터를 2013년 모교에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한독포럼과 한독주니어포럼, 한미공공외교포럼, 유엔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최민희(사학 85)

최민희 지음 / 21세기북스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는 최민희 동창의 언론 운동과 정치 활동의 여정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김유진 이사와의 대담으로 담아낸 책이다. 최 동창은 언론개혁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으로, 1985년 월간 『말』 1호 기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한 후 평생을 언론 바로 세우기에 헌신했다. 이 책은 최 동창의 삶을 반추하는 동시에 한국 언론개혁운동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

고,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찾도록 도와 준다.



내 아이 해석법

권현희(커미부 88)

권현희·김상연 지음 / 비비트리북스

권현희 동창이 『내 아이 해석법』을 출간하였다. 『내 아이 해석법』은 철학관에 가지 않고도 직접 부모 자신과 아이의 타고난 성격을 알 수 있는 독학 명리학 교재다. 사주명리학과 교육을 접목시킨 교육 명리학 서적으로 아이의 사주마다 타고난 성격에 맞는 '맞춤 공부법'을 제시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주 구성을 통해 '소통의 기술'을 조언한다. 권 동창은 여성 월간지 『여원』과 『Queen』에서 12년 간 기자로 활동하였고, 2000년 제1회 SBS 영화문학상 공모전에서 「금원」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3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颓 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3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2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3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VIP 당신의 예정된 행복을 향한 S.Noble

에스노블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결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드립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대한민국 3%를 위한 결혼정보클럽 S.Noble

Superior Noble

S Noble

SINCE 1999



에스노블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두 대통령가의 성혼을 이루어낸 22년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으로
당신의 품격 있는 결혼에 에스노블이 함께하겠습니다.

SAMSUNG CARD 제휴 할인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메르세데스-벤츠 모터원 고양전시장, 서비스센터 Grand Open.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0
- 문의 : 전시장 02-381-9999
서비스센터 031-966-2222

Mercedes-Benz



모 터 원

전시장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0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115번길 50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66

인증중고차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11

Tel | 02-381-9999

Tel | 031-907-7777

Tel | 031-878-3333

Tel | 031-912-9000

Tel | 031-977-5700

서비스센터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82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66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1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0

Tel | 031-905-5588

Tel | 031-841-5588

Tel | 031-972-5588

Tel | 031-974-5588

Tel | 031-966-2222